

성도의 빛



12
1990



성도의 빛

1990년 12월호



일반

1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2

대관장단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
에즈라 테프트 벤슨

10

크리스마스 추억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엘 톰 페리 장로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제임스 엠 패러모어 장로
아테스 지 캡

19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호르헤 발뷔이나

20

와 보라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32

싱가포르 성도들
리차드 타이스

40

성스러운 숲
도날드 엘 엔더스

46

예기치 않은 별
마가레타 스펜서

청소년란

17

장난감 꿈이 구조대에...

로레타 파크

26

희망의 손짓
애니타 엠 휘이

28

안개 속의 음성
테리 제이 모이어

45

새해의 결심을 실천함

정기 특별기사

9

물론 메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25

방문 교육 메시지
경전 공부를 통하여 주님을 기억함

65

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새로운 아시아 지역 회장단
멀린 알 리버트

66

교회 및 지역 소식

어린이란

50

물론경 이야기
야렛인이 바벨을 떠남

52

예수님께 드리는 성탄절 선물
달리 힐드레스

55

노래
잘자라, 예수

56

함께 나누는 시간
그리스도께로 나아옴
로럴 롤핑

58

어린이에게 전하는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마음의 선물

60

예언자를 찬양함
팻 그래햄

62

말기유 장면이 보이는 투명 상자
엘리스 니븐 블랙

64

재커리의 별
캐스린 엠 헤이스

표지 :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일부, 하인리히 호프만 그림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렉스 디 피네가,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프란시스 엠 기번스, 제프리 알 홀런드

통 권: 제296권, 제27권, 제12호
등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90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홍 무 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0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0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0912 320

Printed in Korea 12/90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는 이때 우리는 여러분과 더불어 또 한번의 성탄 절기를 맞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 세기 앞을 내다보면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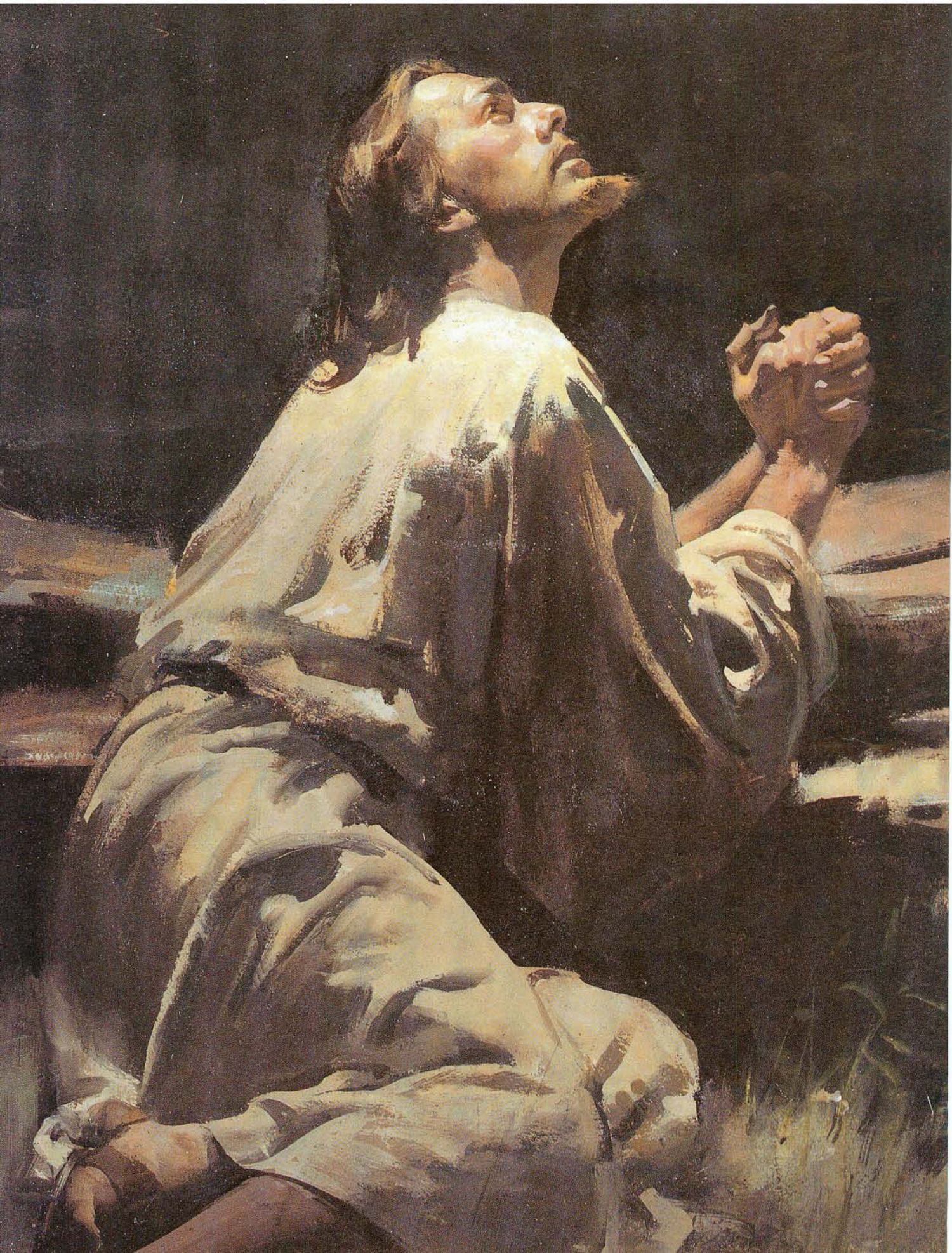
“구세주께서 지상에서의 성역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베드로후서 1:16).

“150년 전에 회복된 경륜의 시대의 증인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교리와 성약 76:2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음을 간증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오면 영생을 얻으리이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에게로 뻗어져 있어,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영접하여, 내게로 나오는 자를 축복하리이다’(니파이삼서 9:14).

“이 영광스러운 절기에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 번 부활하신 구세주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헌신적으로 따를 결심을 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고든 비 힝클리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제2보좌



예수 그리스도 :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명백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며,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는 미래를 걱정하며 세상이 우리 각자에게 안겨 주는 시련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확신과 희망과 신뢰를 오직 한 분에게로 향하는 것이 왜 당연한 일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의 화평을 얻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는 데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 왜 그토록 필요한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따라 우리가 미래에 용기와 희망과 낙관으로 혹은 불안과 걱정과 비관으로 볼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세상을 극복하고 인간의 실패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희망, 확신 및 힘을 주실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란 우리는 비록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모두
알고 계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무슨
생각을 하든지,
의심하지 말며 두려워
말”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올바르게
우선 순위대로 행할 것인가를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소한 약점을 극복하고 대인 관계에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를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 : 35 참조)

예수님은 금식과 기도와 남을 위한 봉사를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마 4 : 4)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히브리서 4 : 15), 따라서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 : 18 참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며 최고의
보혜사이십니다. (이사야 9 : 6 참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슬픔과 죄로 고통받는 마음을
달래 주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 어떤 사람도 주지
못하는 특별한 화평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 : 27)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 : 11 참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속성을 모두
지니고 계십니다. 또한 고결하시며 인내심이 강하시며
친절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자비로우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속성 가운데 약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때면,
예수님은 그것들을 기꺼이 강화시켜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기쁘자이며 모시기십니다. (이사야 9 : 6
참조)

고통, 무지, 부적합, 정신 박약, 혹은 죄악 등 진실로
인간의 어떠한 상태라도 예수님이 모르시거나 예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 : 28)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며 중재자이시며
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와 자비를 모두
충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송을
변호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죄를 심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분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무한한 권세와 지혜와 사랑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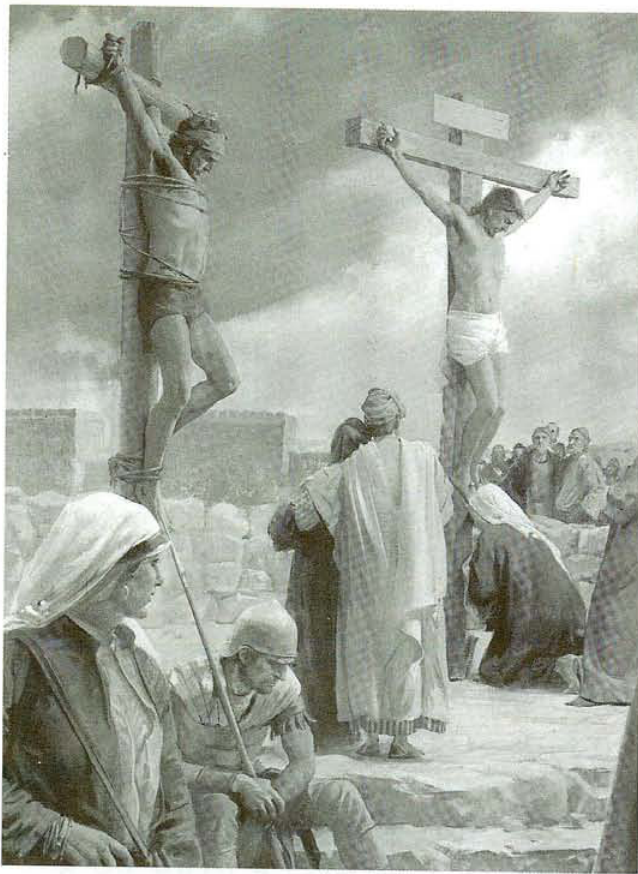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만물보다 낮추셨기 때문에 (교성
122 : 8 참조) 우리가 일상 생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란 우리는 비록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모두 알고 계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무슨 생각을 하든지, 의심하지 말며 두려워
말”(교성 6 : 36)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란 예수님이 모든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릴 수 없는 악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구는 예수님의 정당한
통치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사회의 악에 대한 완전한
처방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우리 생활에 적용될 때에만
효과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켜야 합니다.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우리는 현세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를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 일을 하셨는가를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 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교성 19 : 16, 18)

구세주께서는 지상 생활을 하시는 동안 모든 일에
 그래 오셨듯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쓴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구세주께서 갓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인간을 위해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고통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불평이나 보복도 없이 원수들이
 가하는 굴욕과 모욕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잔인한 수모를 참아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진하여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요한복음 10 : 18)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 : 25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소생시키는
 권세를 가지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극복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부활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요한복음 14 : 19)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이름, 곧 주님의 업적을
 나타내는 신성한 이름을 온마음을 다해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해 지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실 것을
 미리 알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며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인자이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명을
 기꺼이 달성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필멸의 인간도 다른 사람을 실패와 타락된
 상황에서 구속시킬 권세나 능력을 갖거나, 스스로
 생명을 내어 줌으로써 다른 모든 인간을 위한 부활을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구속의 사랑을
 기꺼이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그 일을
 하셨는가를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업적은 모두 우리에게 대한
 비이기적이며 무한한 사랑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생각과 간증은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극복하고 인간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데 필요한 희망과 확신과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고 그분의 율법과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며(모사이야서 3:5 참조), 지상에 오시기 이전에 선택되신 분입니다. 또한 하늘과 지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생명과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주내의 만물이 그로 인해 다스려지는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고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그분의 무한한 권세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미리 약속된 때에 신성을 지니신 채 고귀한 출생을 통해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인간의 속성을 물려받으셨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신의 속성과 권세를 물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출생으로 인하여 육신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영광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과거나 미래의 어느 인간도 갖지 못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실 그대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마태복음 1:23 참조)

예수님은 비록 지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에 의해 필멸의 육신이 갖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을 받으며...주림과 갈증을 겪으며...기력이 진하"(모사이야서 3:7)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가시더니, 마침내" 아버지 권세의 "충만함을 받으시"었으며, 그리하여 "그는 하늘과 땅에서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교성 93:13, 17)

일단 우리가 인자로 예배드리는데 관한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그분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질병을 물리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모든 것을 명령하셨는지 더욱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쫓아 낸 악마조차도 그분께 복종하였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율법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율법과 계명을 주셨으며, 이 율법은 진실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전에 맺은 모든 성약을 온전케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율법ियो, 빛이니,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허락하겠음이라"
(니파이삼서 15:9)

그리스도의 율법안에서는 모든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회개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로부터 깨끗하고 성결케 해주는 권세인 성신을 받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율법과 의식에 따름으로써 우리는 각자 심판의 날에 그분 앞에 흠없이 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의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지옥의 문이 저들을 이기지 못할"(니파이삼서 11:39)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니파이 이서 4:30 참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일에 감사나 고마움을 나타내려면 다음의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

(니파이이서 32 : 3)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하신 다음 말씀을 실천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 : 37, 39)

그러면 오늘날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당면한 문제와 역경을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일이 행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간단한 처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그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으라. 그가 천지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믿으며,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만사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또한 너희 죄를 회개하여 죄를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믿으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진실로 너희가 이 모두를 믿을진대 이를 행하라. (모사이야서 4 : 9~10)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이 지상에 살았던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신 무죄하신 인자를 우리의 이상으로 삼을 의무가 있습니다.

“고결하심의 모범을 보인 숭고하신 분

“본질에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

“완전한 사랑을 지니신 분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구세주

“영원하신 아버지의 흠없는 아들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이라(데이비드 오 맥케이,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1년 6월 478쪽)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의 먼지 길을 걸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랑이 가득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라는 것을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주님의 종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려하시며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 계신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시며,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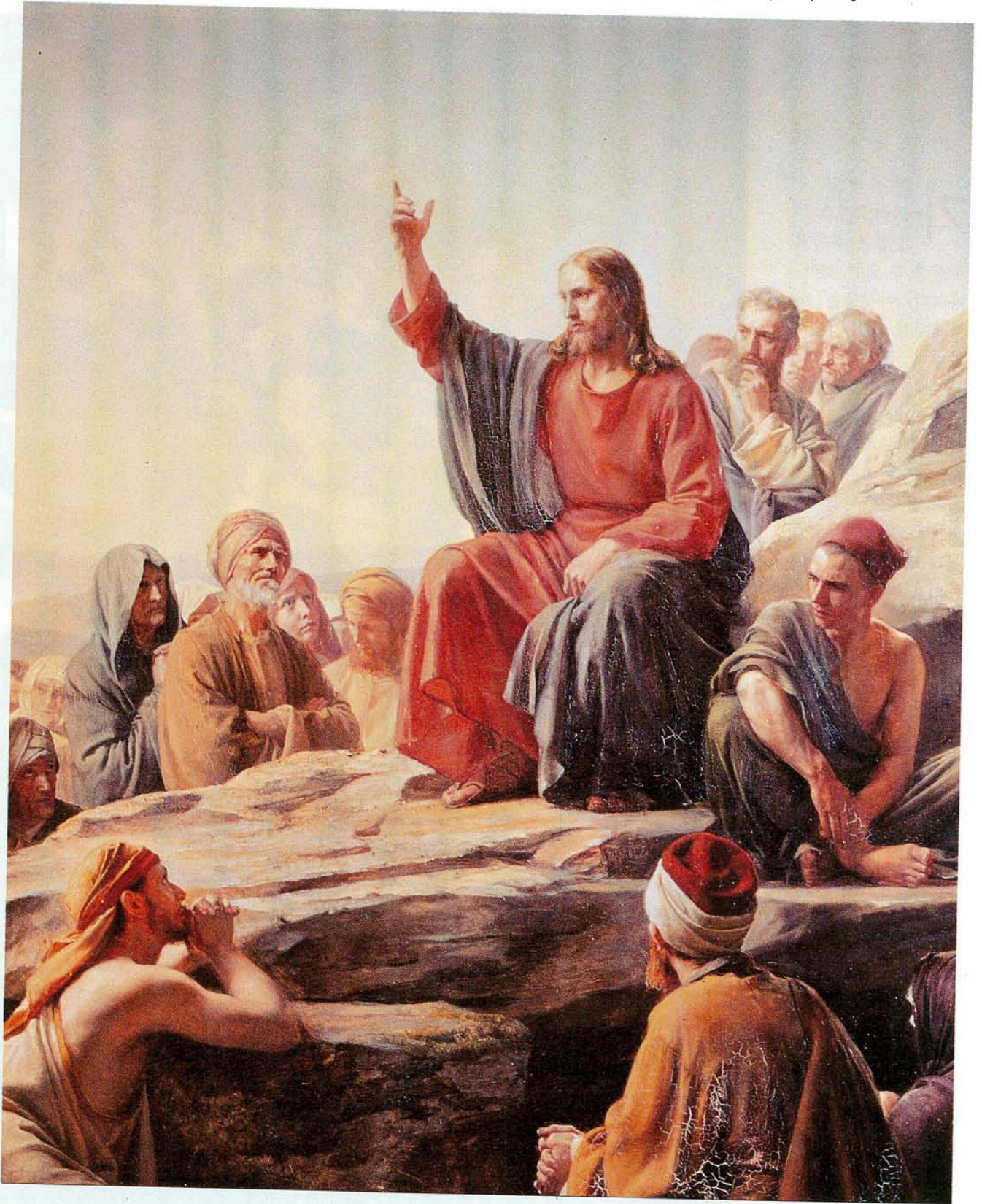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경배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

1983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
2.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용기와 희망과 낙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직면한다.
3. 예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신성한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대속을 이루신 구속주이시며, 부활을 가져오셨고, 만사에 모범을 보이셨으며, 최고의 보혜사, 기묘자며 모사이시고, 우리의 변호인이시고 중재자이시며 판사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힘과 확신을 주실 권능을 갖고 계신다.
4. 주님을 믿는 신앙이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 즉 주님의 권세, 지성 및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생활에 적용시킬 때만 효과가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마태복음 5-7 참조)

크리스마스 추억

가 장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종이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가게에서 파는 것도 아니며,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해 동안 계속 밝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며, 항상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크리스마스에 얽힌 추억을 의미한다. 이곳에는 다섯 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들의 크리스마스 추억이 소개된다.



기쁨에 넘친 재회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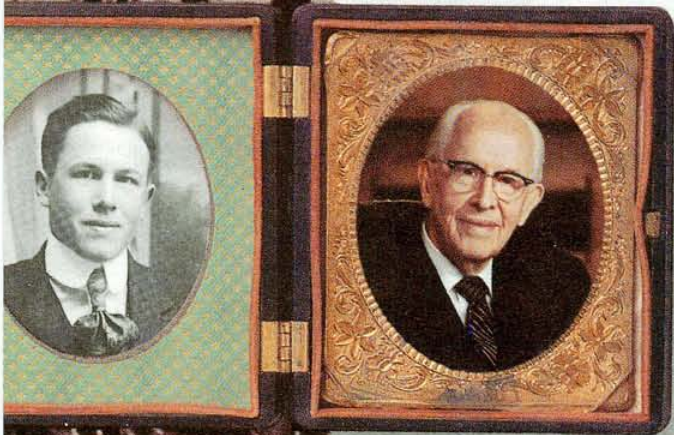
1944년에 찍은 벤슨 가족 사진은 솔트레이크시티 신문에 게재되었다. 온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면서 벤슨 대관장은 어린 시절 농장에서 가족과 보낸 성탄절에 대한 추억을 되살린다.

저는 1923년 첫번째 선교 사업을 마친 후, 크리스마스 전날에 아이다호주 휘트니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적인 말일성도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집에서 저는 10명의 형제 자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과 기쁨에 넘친 재회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의자 위에 양말을 하나씩 걸어 두셨으며, 각 의자 위나 아래 혹은 가까이 성탄절 선물을 조금씩 놓아 두셨습니다.

그 성탄 전야에 부모님들은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실은 침대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이 몰래 숨겨 놓으신 선물을 곡물 창고나 농장 이곳 저곳에서 찾아내서 양말에 채워 넣었습니다. 선물 찾기를 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 서로의 이야기를 했으며, 부모님은 제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동생들이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그간의 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영국에서 30개월 동안 행한 놀라운 선교 사업에 관하여 이것 저것 질문하셨으며 저는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만큼 제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크게 느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성탄절 아침 일찍 기상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정확한 기상 시간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오전 5시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는 거실로 가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놓고 간 선물을 뜯어 보는 일과 각자 양말 속에 든 좋은 선물을 받는 흥분을 맛보기에 앞서, 먼저 꿀과 버터를 바른 빵과 우유를 먹기 위해 주방으로 갔습니다. 즐거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섯 명의 남동생들과 네 명의 여동생들의 즐거워하는 모습과 훌륭하신 저의 부모님들께서 인자하신 표정으로 자녀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과 가족이 서로 단합된 모습을 지켜보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탄절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수년 전 그 참혹한 전쟁이 끝날 무렵 저는 점령군 소속으로 외국에 주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도착한 지 얼마 안되어,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음식을 찾으려고 우리의 쓰레기 통을 뒤지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좀더 실제적인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갖고 있던 돈을 모금하였으며, 그들에게 고아원을 마련해 줄 의사가 있는 어느 지역 종교 단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내어 그 시설을 수리했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운영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와 오자, 우리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는 대신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고향집으로부터 보내 오는 장난감들이 매일매일 도착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나무는 찾아냈지만 그것을 장식할 만한 장식물들이 없었습니다. 어느 여자가 우리에게 종이를 접어 새를 만드는 법을 알려 주었으며, 우리는 선물 포장지로 새를 만들어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선물은 대부분 읽고 버린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 신문으로 포장했습니다. 저는 그 어린이들과 지낸 성탄 전야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케롤을 불러 주었으나, 아주 잘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에게 영어로 노래를 불러 주기 위해 수 주일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아 마이 선샤인”이라는 노래로 케롤은 아니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 성탄 전야에 우리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의해 크게 감동되었으며, 특별히 그 어린이들이 우리 가족들로부터 온 선물들을 개봉하는 순간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제 생각엔 그 아이들 가운데 몇몇은 아마도 수년 동안 장난감을 전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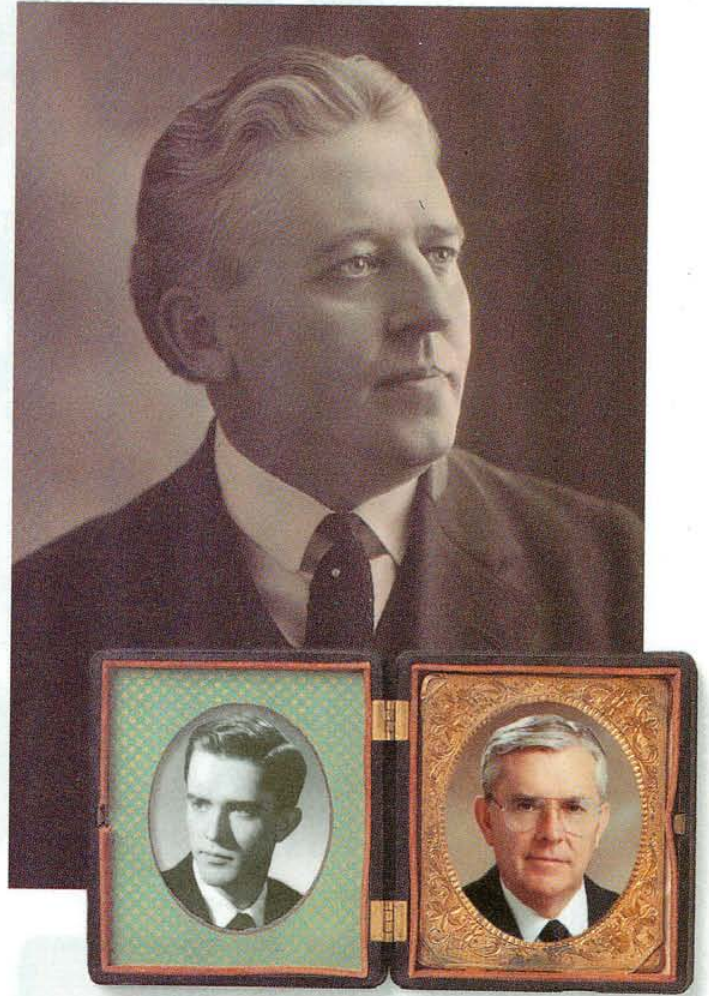
페리 장로는 전시에 군에서 복무했다. 성탄절에 그와 친구들은 고아들을 돌보아 주었고,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인형을 선물하기 위해 자신들의 선물을 포기했다.

가져 보지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이 위대한 성탄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결코 그 성탄절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누군가의 삶에 작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데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함

엠 러셀 벨라드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벨라드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었던 그의 조부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가 성탄절 아침 방문했던 기억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있다.

어린 시절 저의 가장 즐거운 추억 가운데 하나는 성탄절 아침에 솔트레이크시티의 버틀러 거리에 있는 우리 집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찾아오시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멜빈 제이 벨라드께서는 제가 열 살이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신 분이셨으나, 어린 저로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그분은 그저 할아버지였으며, 그분이 특별히 우리집으로 성탄절 아침에 찾아오시길 간절히 기다리는 것으로 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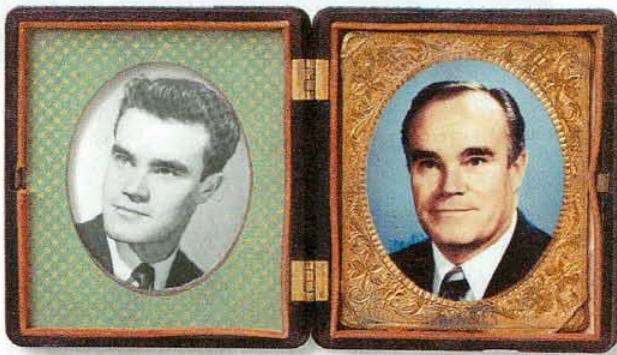
저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일이 년 전의 성탄절 아침이 기억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새로 마련한 선물 꾸러미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여행을 하시고 집에 계시는 적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 성탄절 선물은 오히려 제게 더 알맞을 듯했습니다.

조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그 특별한 성탄절 아침을 회상해 보는 것이 제게는 아주 즐거운 추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 되어서 조부모님과 같이 지내던 그 특별한 성탄절 아침에 대해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자 손녀들이 저를 찾아 주고 또 제가 아이들을 보러 가면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이 오래 기억할 만한 추억을 남겨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루셀
선교부에서 보낸 첫
성탄절에, 패러모어
장로는 가족과 함께
갖고 있던 돈과
성탄절에 필요한
식료품들을 넣어 둔
상자를 모아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전해
주었다. 그들은
전에는 결코 맛보지
못했던 베푸는 기쁨을
느꼈다.



훨씬 더 훌륭한 선물

제임스 엠 패러모어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은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그곳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포함해서
어린 여섯 자녀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오기 전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줄 성탄절 선물과 옷가지를 보내

달라고 고향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제대로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성탄 전야에 가족이 함께 앉아 신약전서와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읽었지만, 선물이 많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다소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던 그 도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석에서 갖고 있던 돈과 성탄절에 필요한 식료품을
담아 둔 상자들을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어느 조그만 아파트를 방문해서
성탄 캐롤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전에는 결코 느껴 본 적이 없는 충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베푸는 기쁨과 이를 받는 자의
영을 느꼈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도 함께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성탄 전야에 고향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선물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물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에서
유일한 참된 선물이 있다면 이는 자신을 남에게 내어
주는 선물일 것입니다.



매년 캡 자매의 가족은 함께 만나 구세주의 탄생을 경축하고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것을 다짐한다.

종은 여전히 울립니다

아데스 지 캡
본부 청녀 회장

수년 전 성탄절이 되기 얼마 전에 조카 셸리가 엄마의 손을 잡고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일년만 더 믿어도 될까요?”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그 일이 있던 후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전통을 하나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성탄절 전야에 우리는 성탄절 트리 주변에 모여서 조명의 밝기를 낮게 해놓고 벽난로에 불을 지펴 놓고서 일년 중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는 다음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일년만 더 믿어도 될까요?” 이 질문은 산타클로스 에 대한 어린 시절의 전통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경축하고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신뢰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성역과 속죄 및 부활을 믿고 있는가? 또는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를 따르라는 권고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특정한 한 해 동안만 이렇게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영원히 따르기로 성약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한 시점, 즉 특정한 년, 월, 주, 일의 한 시점을 살고 있으며, 성탄절은 다가올 새해를 위해 계획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직분을 재확인하는 절기입니다.

모두가 돌아가며 이같은 신앙을 고백한 후에는 때때로 다음과 같은 좀더 어려운 질문, 즉 언제 믿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활과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믿음에 따라 생활하며 한 해 동안 서로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러한 토론과 다짐이 있고 나면, 누군가가 크리스 본 알스버그가 쓴 ‘더 플라 익스프레스’라는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은종의 해맑게 울리는 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야기 중에 한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을 흔들었다. 그 소리는 누나와 내가 들었던 어떤 소리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런데 엄마는 ‘그거 소리가 안 좋구나’라고 말씀하셨으며, 아빠는 ‘그래 맞아, 종이 망가졌나보구나’라고 하셨다. 내가 종을 흔들었을 때 부모님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셨던 것이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때는 내 친구들이 대부분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모두 종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 어느 성탄절이었다. 그런데 누나까지도 그 아름다운 종소리를 더이상 들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제는 나도 노인이 되었지만 진실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그 종이 울리듯이 여전히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각자 이 절기 동안 목에 걸수 있도록 붉은 비단 리본으로 묶은 조그만 종을 하나씩 받습니다. 우리는 그 맑은 종소리를 우리의 간증으로 또는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며 다음 한 해 동안 신앙에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라고 생각하며 듣습니다. 벽난로의 불꽃이 나즈막히 피어 오르는 동안, 우리는 성서에서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 중, 천사가 선포한 구세주의 탄생에 관한 누가의 기록을 찾아 읽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1).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



장난감 곰이 구조대에...

로레타 파크

유 타주 레이튼에 사는 다섯 살난 웨슬리 라센은 다리에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 웨슬리는 풍선과 회복을 바라는 내용의 카드와 큰 장난감 동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웨슬리가 가장 아끼고 있는 것은 손으로 만든 작은 장난감 곰이다. 구조대원들이 준 것이다. 웨슬리는 그 곰이 웨스트 포인트 유타 스테이크의 청녀들이 준 선물임을 알지 못한다.

웨슬리의 말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이 자신을 구급차에 실어 병원에 데려다 주었는데 자신이 “용감”했기 때문에 그 작은 곰을 주었다고 한다. 웨슬리는 다리를 고치느라 몇 주 동안 견인대에서 있으면서 그 곰을 곁에 두고 잠시도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곰은 웨스트 포인트 스테이크 청녀 회장인 미키 아담스와 제2보좌 애니스 닉슨이 창안해 낸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다. 신문에서 다른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유사한 계획에 대해 읽은 후, 이 자매들은

그 지역 치안대장인 케이 디 심슨씨와 함께 치안대 의료 담당 부서와 순찰 부서에 장난감 곰을 비치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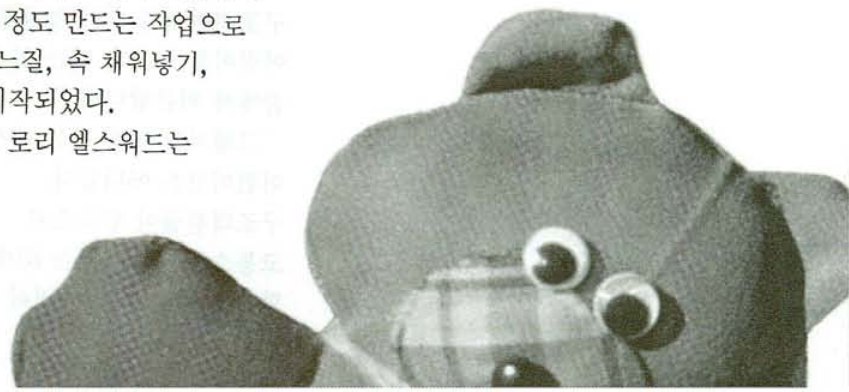
심슨 대장은 그의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체의 약 45퍼센트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 곰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들이 경찰관이나 구조대원을 접했을 때 얼마나 놀라는지를 알기 때문에 스테이크 청녀들은 “아이들이 통증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할 수 있는 것을 주기 위해 아이들이 애착을 가질만한 것을 준비하길 바랍니다.”라고 아담스 자매가 말했다.

그 결과 스테이크 청녀 모임에서 곰을 200개 정도 만드는 작업으로 마름질, 바느질, 속 채워넣기, 마감질이 시작되었다.

꿀벌반의 로리 엘스워드

어느 청녀 조직에서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장난감 곰을 기증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기증한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니콜은 사고를 당했을 때부터 수술에 들어갈 때까지 꼭 붙들고 있던 장난감 곰을 지금도 갖고 있다. 그 귀여운 장난감 곰은 어린 아이가 고통이나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했다. “맨 처음에는 곰을 만드는 데 익숙치가 않아서 무척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곰이 누군가의 고통을 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람이 있었어요.”

그날 밤 실제로 90개의 곰이 완성되었다. 어떤 청녀들은 만들다 만 곰들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완성하기도 했다.

그 곰은 키가 20센티미터이며 스테이크 회원들이 기부한 천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어떤 회원들은 속에 채워 넣을 솜이나 형깁을 기증했다.

이들은 완성된 곰 중에 100개는 치안대로 보내고 나머지 100개는 그 지역 병원으로 보냈는데 병원측은 어린 환자들이 골라 가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아 놓았다.

구조대원들이나 보안 경찰관들은 구조 작업을 할 때에 열 살 이하의 어린이가 있으면 그 어린이에게 장난감 곰을 하나씩 주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부서의 방침이 되었다.

심슨 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조대원들은 곰을 두세 번 주어보고는 곰이 어린이를 진정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구조대원이나 보안 경찰들이 어린이를 구조할 때는 언제나 그 곰에게 의존합니다.”

그렇지만 곰을 받는 대상이 어린이만은 아니었다. 구조대원들이 발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80세의 할머니에게 곰을 준 적이 있다. “그

곰이 할머니를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곰을 손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라고 심슨 대장은 말했다.

비행 구조대원이기도 한 심슨 대장은 곰이 어린이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12살의 니콜 윌라스는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이송되어야만 했다. 니콜은 교통 사고를 당해 신장과 간에 손상을 입어 내출혈 중이었는데 헬기에 실려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에도 그 곰을 놓지 않으려 했다. 니콜은 수술이 진행되기 직전에 가서야 곰을 손에서 놓았다.

그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니콜은 “자동차가 심하게 부서졌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저를 뒷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뒷좌석을 빼내야만 했어요. 그분들이 저를 구급차에 실으면서 이 귀엽고 작은 곰을 주셨어요.”라고 말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무서운 것도 잊었어요. 그 곰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것 같지도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곰을 제 바로 옆에 놓았어요.”

꿀벌반의 제니퍼 테크미어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구급차에 놓을 물건을 만드는 것이 정말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특별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호르헤 발뷔이나



병 원 응급실로 들어오는 그는 늘상 보던대로 걸인의 행색을 하고 있었다. 바싹 마르고 등은 굽어 있었으며 고통에 찌든 모습으로 그는 발을 절뚝거리며 천천히 앞으로 다가왔다. 시력을 잃은 그의 두 눈은 망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를 직시하고 있었다. 그의 누더기 옷에서 나는 냄새는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꺼리게 하고도 남을 정도로 지독했다. 그러나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그를 가까이 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진찰을 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자신은 몹시 아프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병의 증상을 소상히 설명하고 나서, 그는 한탄하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게는 가족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을 잘 집도 없소.” 그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를 치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중요성과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이웃에 대해 관심과 동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친지들이 있었지만, 그가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하자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배고프고 가난한 맹인과 이야기하면서
구세주의 가르침이 내게
현실로 다가왔다.

사실상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그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헌 옷과 냉마를 주워서 팔아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비록 작고 초라한 집이지만 자기 가족과 함께 살자고 그에게 권유했다. 그 집은 좁고 작았으며 파리와 쥐가 들끓었지만 그 가족은 그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세 시간 동안이나 걸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비록 그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까지 먼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 토론했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물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물론 신중히 생각하고 한 대답은 아니었으나, 그 말이 내 가슴속에서 우리나라와서 했으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에 대한 사랑이 커졌다. 형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서 내 몸이 떨려 왔다. 나는 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으로부터 참으로 감사를 드릴 만한 교훈을 얻었다. 나는 그에게 짧은 시간과 약간의 음식을 제공했지만, 그는 나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었다.*

호르헤 발뷔이나는 베네쥬엘라의 마라카이보 사우드 스테이크 라 파즈 와드 회원이다.



“와 보라”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수님은 베들레헬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집이 있었던 곳인 나사렛의 예수로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산과 계곡사이의 작은 마을인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은 부자도, 존경받는 지도자도, 또한 주민들도 많지 않은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어린 예수가 성장하여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누가복음 4:32)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활과 업적에 두려워하고 당황하며 심지어는 아연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이한 능력과 행적과 배경에 관하여 자주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요한복음 1:46) 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자 원한다면, 그때의 대답이나 오늘날의 대답이나 모두 “와 보라”입니다.

목자들은 와 보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왕을 보았습니다.

온다는 말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다, 가까이 다가오다,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다는
말은 눈으로 인지하거나 지식을
얻는 것이나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누가복음
2:7~15)

목자들은 와 보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마태복음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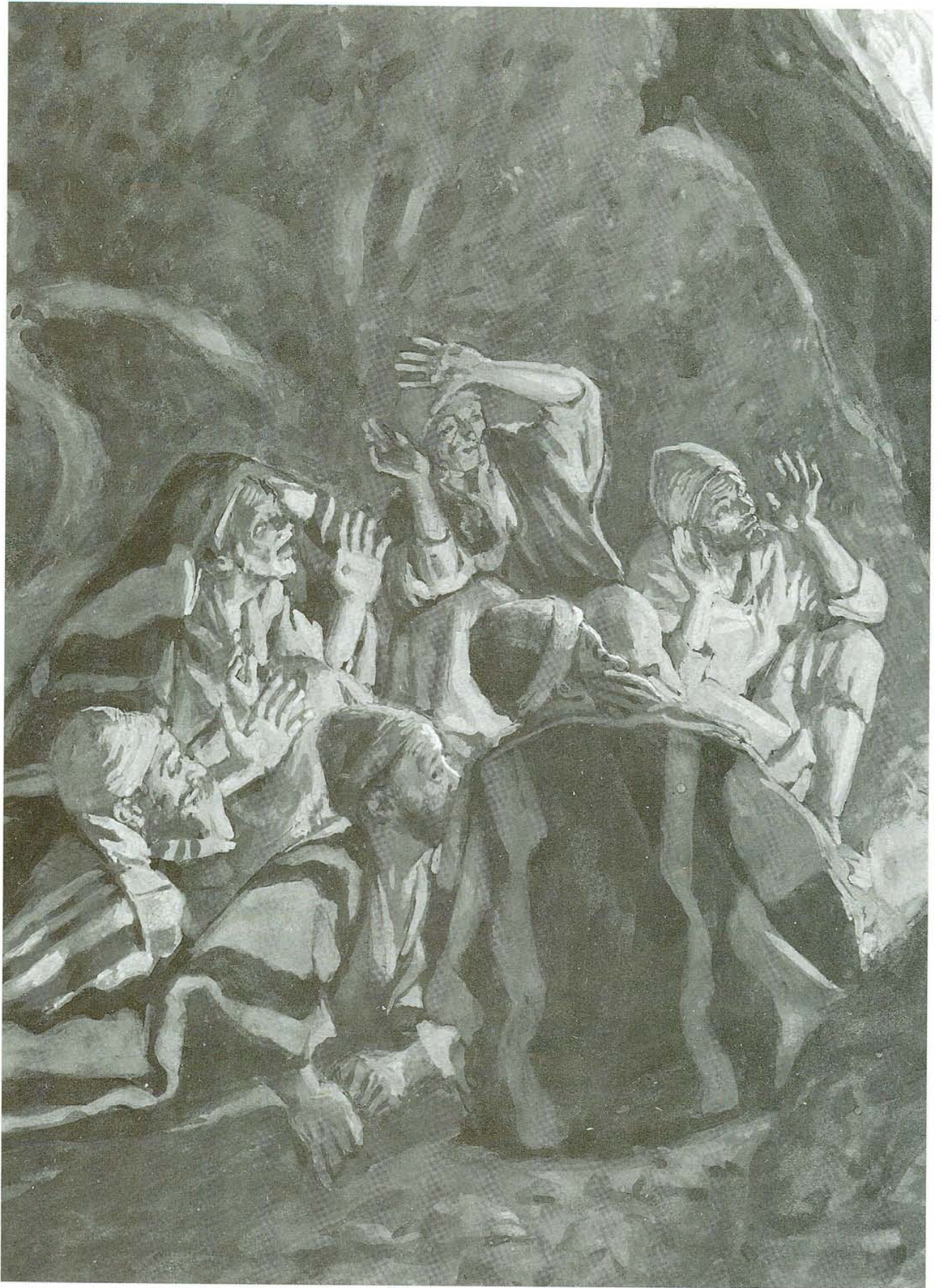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그분이 여기 있도다. 와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와서 보겠다는 결심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망해
있어요.” “내 환경에선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염려해
주지 않아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깊은 혼란과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갖는 것은 다
웁지만 제겐 아니예요. 그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슬픔을 키울 수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를 가련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결점만을 찾거나 스스로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와서 보고 알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절기와 또한 다가올 미래에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난체하거나 독선적이거나 위선적이거나 우월감을 갖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저지른 좋지 않은 행동을 보고 친구와 비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이 학교 또는 저 학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저 이웃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저 와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저 가정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대답은 이러해야 합니다. 와 보라. 와서 우리를 알아보라.

우리는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는 진리를 종종 잊고 지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얼마나 친절합니까? 비회원에게 얼마나 친절하며,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친절합니까? 두번째 커다란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가복음 12:31)입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잘 알려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29~37 참조) 외로운 사람들, 수줍음 많은 사람들, 소수 민족이나 말은 하지 않지만 좋은 친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선한 사마리아인일 수 있습니다.

범위를 더 넓혀서 사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우리를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정을 쌓도록 합시다. 싸움을 피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와 볼 수” 있도록 살아가면서 좀더 나은 모범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과 제가 “와 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도록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비천한 환경과 상황 중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며 밝히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또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셨는가는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에 비견해 볼 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며, 우리의 구세주요 친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교회와 왕국은 오늘날 모든 백성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려는 끊임없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선포하기 위해서도 자기 훈련이 요구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도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며,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게 될 때 그것들은 우리들 각자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와 보는” 자세는 우리가 기쁨을 찾는 과정에서 절망의 골짜기를 가리워 주는 소중한 기억들과 기쁨의 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신다면, 와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고자 하시거든 와서 보십시오.

베들레헴과 나사렛의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요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를 엄숙히 선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의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아멘. *

경전 공부를 통하여 주님을 기억함

“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 나의 가슴이 이를 깊게
사모함이라.”(니파이서 4:15)

취학 전인 자녀를 셋씩이나 둔
어머니인 제리 브링리는 복음에 따라
생활하며 자녀들을 의롭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전을
공부할 시간이 좀처럼 나질 않는다고
생각했다.

“리하이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행이 내 문제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하고 제리는 생각했다.
“두 살난 고집쟁이에게 화장실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나 네 살된 아이에게
장난감을 골라 들게하는 방법이 도대체
물몬경 어디에 나온단 말인가? 다음에
나올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는 더 큰 걱정거리들이 산재해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대답은 제리가 상호부조회
영적인 생활 공과 교사로 부름을
받음으로써 얻게 되었다. 제리는
공과를 준비하기 위해 경전을
공부하면서 경전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것에 관하여 평소에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해 경전에 나와 있는 해답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목적을 가지고 물몬경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제리는 회상한다.
“부모의 역할에 대한 예가 나올 때마다
간략한 표기와 함께 그 구절을 적어
두었다. 물몬경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적어 놓은 예를 참고로 하여 원리를
정하고 그 원리들을 적용하였다.”

대한 참조 성구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전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줄 알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니파이서 19:23)

경전은 또한 시련의 때에 위안의
경전은 제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데
지침이 되었다. (부모를 위한
지침으로서의 물몬경, 성도의 벗,
1989년 8월호, 33쪽 참조)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공부한다면, 영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는 특정한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특별한
필요 사항이나 의문점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 경전 색인에서 그 주제에
근원이 될 수 있다. 해즐 헌트의 남편인
빌은 만일 그와 해즐이 신앙을 갖고
있다면 병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은 후 곧 사망했다. 남편이 죽은 후

해즐은 자신이 충분한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다.

해즐은 가정 복음 교사에게 “왜 제
남편을 데려가셨는지를 제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다. 그는 교리와
성약 42편 48절을 읽어 주었다. “나를
믿는 신앙이 있어 나를 줄로 믿고 또
죽기로 정해지지 아니한 자는 병
고침을 받으리라.”

“거기에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즐은 말한다.
“저는 그때가 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정해진 시간이었음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깊이 생각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평화와 기쁨을
주시며 우리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는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의
생활이나 그 자매의 생활에서
감명받았을 때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2. 우리가 정기적으로 경전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관해 토론한다.

(관련 자료로서 가정의 밤
자료집, 제4과 ‘경전을 함께 공부함’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란을
참조한다.)

희망의 손짓

애니타 엠 휘이

그 애는 내성적이었고 나는 외향적이었다. 그런데 왜 그 애가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고 있을까? 이 질문은 내가 열 살이 갓 넘었을 무렵 매주 일요일마다 마음속에 백만 번도 더 떠올랐었던 것이다. 도나 길리암은 나와 같이 꼴벌반이었는데, 조용하고 예쁜 소녀였으며 부모님은 귀머거리였다. 이 때문에 도나는 수화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모든 어른들은 도나가 수화하는 모습이 매우 귀엽다고 생각했다. 도나는 청년 행사 때 수화 통역을 하곤 했는데 그러면 어머니들은 울곤 하였다. 도나는 모든 것을 다 통역했는데 아마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는 것 같았다.

그때는 내가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길 바랄 때였다. 그러나 도나와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도나와 그 애의 가족은 수줍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워드 회원들의 마음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의 열네살 생일이 지난 후 한 달 만에 어머니께서 매우 심한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다. 어머니는 생명을 잃지는 않았으나 증상을 입으셔서 한 달 반 동안이나 입원을 하셔야만 했다. 사고는 11월에 일어났으므로 나는 어머니가 성탄절을 병원에서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가족 활동에 어머니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성탄절을 병원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족들은 성탄절을 “특별한 경험”이나 좀더 성장하는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나는 그저 평범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나는 성탄절 전야에 가족들에 대해 별로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 병실 구석으로 가서 앉아 스스로 처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성탄절 선물을 뜯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쩐지 보통 때와 같은 기대감과 흥분은 없었다.

그때 도나가 우리 병실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휘이 자매님.” 도나의 뒤를 따라 그 애의 부모님이 들어오셨다. 도나는 나의 어머니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잠깐 들었어요. 저희가 노래를 불러도 될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두 놀라서 그들을 올려다 보았다. 도나의 부모님들은 병어리가 아닌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던 말인가? 나는 궁금해서 선물을 옆에 놓고 고개를 들었다. 도나에 대해 품고 있는 시기심을 생각할 때 그 애의 가족이 노래를 부르려는 것이 나에게서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노래를 듣게 되었다.

그들이 ‘고요한 밤’을 부르는 은은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안에서 터져 나오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양손을 똑같이 움직이며 아기 그리스도와 하늘의 평화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나는 억제하려 애썼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도 침대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계셨다. 도나의 눈에도 역시 눈물이 고였다. 나는 갑자기 이제까지 도나에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노래를 끝내고 손을 내렸다. 우리는 모두 감동되어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들어올 때처럼 조용히 떠나갔다. 나는 여전히 방 구석에 앉은 채로 방금 얻은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 곰곰 생각했다. 내가 왜 그렇게 도나를 시기했을까? 도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도나와 그 애의 가족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영을 불어넣어 주어 우월한 성탄절을 소생과 희망의 축전으로 변화시켜 주었다. 그 영을 통해 나는 어머니가 곧 건강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 영으로부터 나는 또 나에게도 역시 재능이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그때 바로 그 병실에서 앞으로는 내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러한 목표를 세우자 마음속으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은은히 되풀이해서 들려왔다.

마음속이 매우 고요했다. *



안개 속의 음성

테리 제이 모이어

성 탄절 전야였다. 댄 리틀은 혼자서 캘리포니아의 짙은 안개속을 네 시간 반 동안이나 차를 몰고 있었다. 댄은 그 네 시간 반 동안 끝이 없을 듯이 깔려 있는 안개 속을 녹색과 흰색의 번호판을 붙인 흰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댄은 선교 사업을 할 때에도 이토록 지쳐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주머니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지니고 있었으며 샌 리엔드로에는 그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 댄은 캘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려면 적어도 세 시간은 더 운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수천 명의 운전자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안개 속을 달리면서 밤이 길게 느껴진다고 중얼거렸다.

댄은 시간을 빨리 보내는 데 크리스마스 음악이 도움이 될까 해서 자동차 라디오의 채널을 돌렸다. 댄은 어째서 자동차 라디오는 때때로 다른 나라의 방송이 잡히든가 어떤 때는 같은 채널을 돌려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라디오를 꺼버렸다.

댄은 그때부터 한 시간 동안 보이는 것이라고는 녹색과 흰색의 번호판을 단 흰 자동차뿐인 안개에 덮인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았다. 긴장되면서도 지루하고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운전이었다.

그때 댄의 마음속에 조용하고도 작은 속삭임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댄, 차를 오른쪽 맨 바깥 차선으로 돌려서 속도를 낮춰라.”

낮추라고? 왜? 다른 모든 자동차와 트럭들도 안개 때문에 전방 3미터밖에 볼 수 없지만 달리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은가?

더우기 그는 지금 너무 늦었다. 현재 속도를 유지한다 해도 이 안개 낀 성탄절 전야가 지나 성탄절 낮이나 되어야 그 반지 상자를 열 수 있을 것 같았다.

댄은 궁금한 마음이 들었다. 정말로 영이 경고해 준 것일까? 아니면 노파심에서 나온 단지 괜한

걱정일까? 다른 차들과 같은 속도로 계속 달릴 수는 없을까? 차를 오른쪽 맨 가장자리 차선으로 돌려서 속도를 낮추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까?

다시 속삭임이 들렸다. “댄, 고속도로에 사고난 자동차가 있으면 제 때에 멈출 수가 없어. 넌 그 사고 차량을 팡 받아버릴거야. 너는 빨리 오른쪽으로 가서 속도를 낮춰야만 해.”

댄 리틀은 영의 속삭임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을 받아 왔다. 마지못해 그는 신호를 넣었고 자동차를 길가로 붙이며 속도를 줄였다. 초록과 흰색의 번호판을 단 그 흰 자동차는 계속 속도를 내어 곧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내키지는 않지만 늦는 편이 안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다. 새로운 속도로 계산을 하니 아마도 길에서 몇 시간은 더 있어야 할 처지였다.

댄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 들려줬던 여러 해 전 성탄절 전야 때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했다. 감독님은 당시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크리스마스 휴가는 없을 것 같았으며 사병인 벤자민 클라크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크리스마스를 보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반가운 지시가 내려왔다. 7일간의 크리스마스 휴가를 즉시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비행기 예약을 하기는 너무 늦었으며 캘리포니아 몬테리에서 나가는 버스를 잡기도 이미 늦어버렸다. 부대에서 교회 회원들과 같이 집으로 가는 차에 편승하기도 너무 늦었다. 어느 것을 하기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는 고속 도로로 걸어나가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려 했다.

캘리포니아 농산물을 가득 실은 트럭의 레드라는 운전수가 벤을 태우고는 네바다 동부까지 데려다 주었다. 트럭을 타고 가면서 벤은 바리톤 목소리를 내고 레드는 아일랜드식 테너 목소리를 내면서 둘 중



하나라도 아는 성탄절 노래는 모두 불렀다.

네바다에서 벤은 북쪽에 있는 집으로 가는 차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 동안 추위 속에서 서 있었다. 쪽 뺨은 도로 위에는 많은 차량이 다니지 않았으며 특히 성탄절 전야라서 차를 얻어 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뚫고 다가오더니 자동차가 속도를 낮추어 멈추고는 벤을 태웠다. 고맙게도 그들은 벤과 같은 방향이었으며 그들은 거의 그의 고향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벤은 감독님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한 것을 생각했다. 이 젊은 군인은 군용 가방을 갖고 뒷좌석에 앉아 차가 출발한 앞좌석에 있는 세 명의 젊은 남자들이 취해 있었으며 점점 더 취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병에서 술을 한 잔 따라 벤에게 권했다. 벤이 사양하자 그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뒷좌석에 앉아 있는 젊은 병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운전사가 너무 취해 있고 자동차는 너무 빨리 달리고 있었으며 자동차 라디오 소리도 너무 시끄러웠다. 상황을 생각하면 할수록 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마침내 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차 좀 멈춰주세요. 나는 내리겠소!”

앞좌석에서 나오는 반응은 비웃음 소리뿐이었다. “그대로 붙어 있어. 이 졸병아, 우리는 멈추지 않을테니까.”

공포 속에서 몇 킬로미터를 가는 동안 벤은 도로 위에서 나는 바퀴 소리와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그리고 앞좌석으로부터 들리는 저속한 이야기와 방탕한 웃음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는 가득 찬 담배 연기와 싸구려 위스키의 독한 냄새를 참아야만 했다.

매 킬로미터를 달릴 때마다 벤은 그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져갔다. 공포 속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어떻게 빠져 나갈지 알지 못합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제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벤은 감독님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그러자 저에게 매우 조용하고도 매우 평화스러운 속삭임이 들렸는데 자동차 바닥에 엎드려 큰 군용 가방을 등 위에 얹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렇게 했다.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벤은 등을 웅크리고 엎드려 자신을 꼭 밀어 넣어 고정시키고는 그의 등위에다 큰 군용 가방을 얹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 이마를 바닥에 붙이고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놓았다.

몇 분 후 마치 세상이 끝장나는 것만 같았다. 바퀴의 마찰음이 날카롭게 나면서 중심을 잃은 차가 커다랗게 곡선을 그리며 돌던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던 두 대의 차들이 서로 부딪치는 충격과 함께 귀청을 터트릴 듯한 소리가 들렸다.

한참 후 이 젊은 말일성도 군인은 의식을 되찾았다. 사망이 캄캄했으며 팔이나 다리, 머리 그 어느 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마치 위도 아래도, 왼쪽이나 오른쪽도 없고 방향을 알려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았다. 앞좌석의 갑작스런 주검을 실은 그 죽음의 차 안에는 가솔린 냄새와 쏟아져 나온 위스키 냄새를 빼고는 그 어느 것도 움직이고 있지 않았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어떤 큰 트럭이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멈추어 섰다. 두 명의 트럭 운전사가 무선으로 경찰에게 구조 신청을 하면서 완전히 박살이 난 두 자동차 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한 차에 죽어 있는 부부와 다른 차에 죽어 있는 세 명의 십대 소년들과 함께 사병 벤자민 클라크를 발견하고는 구해 냈다.

“젊은이,”하고 한 경찰관이 말했다. “자네는 편승할 사람들을 잘못 선택했어. 하지만 나는 누군가가 자네를 돌봐 주고 보호해 주고 있었다고 생각하네. 자네의 생명은 그분의 보호 덕분이니까 자네 생명이 다하도록 좋은 일을 하기를 바라네. 오직 하나님만이 자네 몸에 굽힌 자국 하나 없이 이 밤을 넘기게 할 수 있었을 걸세.”

덴 리틀은 ‘그 오래 전 성탄절 전야에 클라크 감독이 영의 속삭임에 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아니 만약 그 암시를 무시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덴 리틀은 안개 속을 자세히 주시하였다.

그때 갑자기 안개 속을 헤집고 자동차 미등의 빨간 불빛이 보였다. 길 위에 늘어선 불빛과 함께

사이렌 등을 켜고 있는 경찰차도 보였다. 한 경찰관이 막 정지한 자동차의 행렬 사이를 걸으면서 운전자들에게 말했다. “앞쪽에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많은 자동차와 트럭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도록 차선 하나를 치우고 있습니다.”

4차선이나 되는 도로 위를 달리던 북쪽행 자동차들이 한 차선으로 합쳐져 통과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댄은 자신도 믿지 못할 만큼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걱정 되었다. 교통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심하게 부서진 차들 곁을 지날때에는 속이 메스꺼워질 지경이었다.

찌부러진 자동차들, 주머니칼처럼 구부러진 트럭들, 구급차, 경찰차, 구조 경찰들, 그리고 도로 한쪽에 담요로 덮여져 있는 움직이지 않는 인간의 모습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심하게 부서진 차량들 옆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댄은 부서진 차량들을 세어보았다. 열 대...스무 대...서른 대 이밖에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전야에 조금만 천천히 갔더라면 좋았을 고속 도로상에서 최악의 경우를 당해 죽어갔을까?

그리고 그곳 41번째의 자동차는... 댄 리틀은 초록과 흰색의 번호판을 단 그 백색 자동차가 대파된 40번째와 42번째 차량 사이에 끼어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것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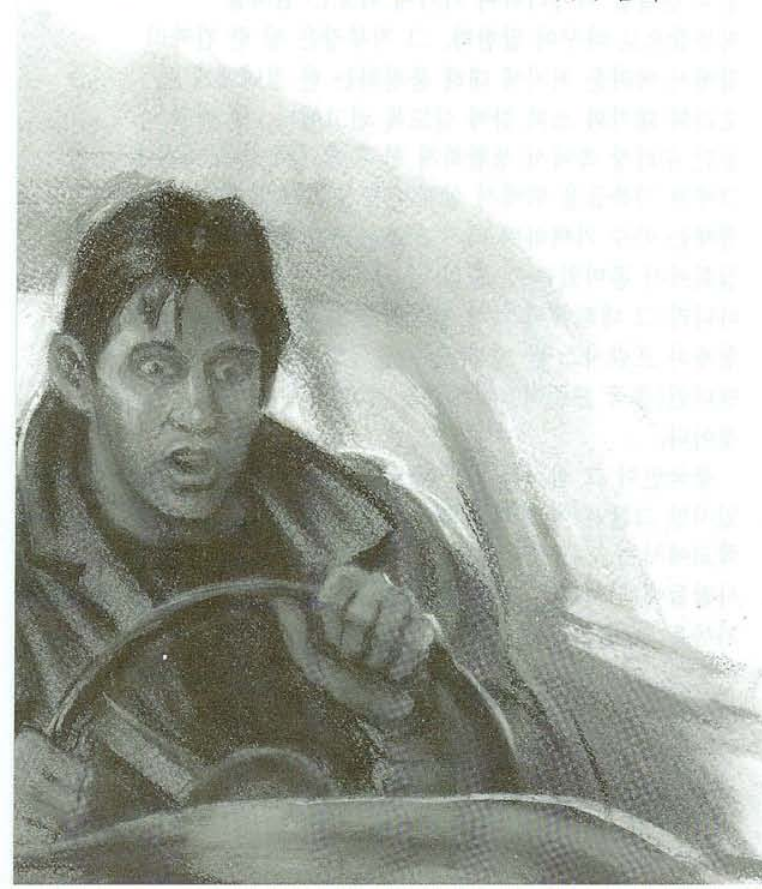
‘영이 나에게 차선을 바꾸고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할 때까지 여러 시간 동안 그 차 뒤를 따라갔었지.’하고 댄은 생각했다.

내가 만약 그 경고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는 내가 만일 경고를 받고서 그것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다. 댄은 이제야 수년 전 감독님이 터득했던 원리를 확실히 이해했다.

마침내 엄청난 사고현장을 빠져 나온 댄은 다시 영의 속삭임에 따랐던 것 같은 속도로 차를 몰았다. 댄은 자동차 라디오를 켰다. 수킬로미터 떨어진 방송국으로부터 맑고 감미로우며 위안을 주는 크리스마스 음악이 흘러나왔다.

방송이 단절될 듯한 기색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

테리 모이어는 교회 복지 봉사과의 선임 인사 책임자이며 슐트레이크 버틀러 스테이크, 버틀러 제8와드 지역에 살고 있음.



싱가포르 성도들

리차드 타이스

싱가포르 시의 북단에서 남단까지 약 5킬로미터 정도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대 여섯 개의 고급 호텔과 강한 인상을 주는 열 한 개의 쇼핑 센터, 그리고 몇 개의 숲이 우거진 공원과 거대한 사무실과 아파트 건물을 지나게 된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싱가포르 섬 나라의 현대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상적인 것은 다섯 개의 회교 사원과 두 개의 중국 불교 사원과 세 개의 인도 사원 - 이 중 두 개는 힌두교 사원이고 하나는 시크교 사원 및 여섯 개의 기독교 교회를 같은 길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때때로, 몇 개의 다른 종교들이 서로 한 구역 안에 모여 있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은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인구 이백 육십 사만 명인 국가의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 준다. 그것은 그렇게 많은 종교들과 다양한 민족의 집단이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1989년 한 지방 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불교가 인구의 28.3퍼센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독교는 18.7퍼센트, 이슬람교 16퍼센트, 도교 13.4퍼센트, 힌두교 4.9퍼센트, 무종교는 17.6퍼센트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에 인접한 많은 나라들은 상이한 민족 및 종교 집단간에 갈등을 겪고 있으나 싱가포르는 그러한 대부분의 분쟁을 피해 왔다. 심지어는 그 다양성조차 “민족과 문화가 잘 어울리고 있는 국가적인 특징입니다.”라고 싱가포르 지방부장 호 아 추안 형제는 말한다.

그러한 다양성과 조화는 그곳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지난 해 새로운 가족 역사 센터가 세워졌을 때, 인도인인 라자호만 형제는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원하는 계보 기록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많은 저의 조상들이 인도 남부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기록을 찾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를 도와

주었던 자매는 중국인이었다. 그 자매는 중국 계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고 인도 계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나 할 수 있는 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심지어는 그 형제에게 판독기 사용법을 알려 주기도 하고 인도에서 어떠한 기록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처음 기록들이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화면에 나타나자 라자호만 형제는 “아이구! 그건 모두 힌두어잖아요. 저도 힌두어를 배워야 하나요?”라고 소리쳤다. 대부분의 싱가포르 거주 인도인들은 인도 남부와 스리랑카의 공용어인 타밀어를 사용한다.

싱가포르 지방부의 맨더린 지부 대회에서 호 지방부장은 성찬식 말씀을 하기 위해 일어선다. 그는 중국 전설을 이야기하며 거기에 나오는 현자를 지부장으로 바꾸어 말한다. 그 지부장은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어려운 처지에 대해 불평하는 한 청년에게 한 오리와 돼지와 소와 함께 살도록 권고했다. 몇 개월 동안 수라장 속에서 생활하게 한 후에 지부장은 마침내 그에게 가축들을 밖에서 살게 하도록 충고했다. 그 형제는 아주 기뻐하며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다. 집회에서 흥미있는 것 중의 한 가지는 호 지방부장 뿐만 아니라 그 대회에서 역시 말씀하는 보좌들인 탄 수 키웅 형제와 프란시스 탄 형제 모두 중국인이면서도 맨더린(중국 표준어)의 배경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인이 그 섬나라 인구의 약 7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러 다른 방언들을 사용한다. 학교에서는 모든 중국인이 맨더린어를 배우지만 많은 사람들에게겐 여전히 제2의 언어에 불과하다. 중국인들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로 말레이인, 인도인, 인도네시아인,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그 나라에 거주하는 유럽인과 북미인이 있다. 모든 학생들은 공용어인 영어를 배운다. 맨더린 지부 회원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한다. (같은 지방부의 다른



위 : 지방부장 호 아 추앙 형제는 다양한 회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그들을 보살펴 왔다.

아래 : 경찰관인 프랑키 풍 형제는 그의 가족과 동료들이 따를 만한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다.

4개 지부는 영어를 사용한다.) 영어 외에도 말레이인들은 말레이어를 배우고 인도인들은 타밀어를 배운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자랄 때부터 필수적으로 두세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다양한 인종 집단을 조화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싱가포르에는 회원들이 많지는 않으나 모두들 매우 활동적이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가 1969년 4월

14일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싱가포르를 헌납한 뒤 같은 해 11월 1일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동남아시아 선교부가 조직되었으며, 초대 선교부장에 지 칼로스 스미스 부장이 성별되었다. 그 해에 싱가포르에서 봉사할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 왔으며 1970년 1월에는 지부가 분리되었다. 그 당시에 침례를 받은 성도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프란시스 탄 형제는 1969년 3월에 선교사들을 만나 3개월 후에 침례를 받았다.

1970년에 교회는 부킷 티마 로드에서 건축 부지를 구입했으며 1973년에 첫 번째 예배당이 건축되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에 따라 정부는 각 종교 단체마다 외국 선교사의 수를 두 명으로 제한했다. 그러한 통제 조치는 1988년에 완화되어 입국하는 외국 선교사 수를 열 명까지 허용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는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1980년 신정에 싱가포르 선교부가 조직되면서 교회 조직을 더욱 완전하게 갖추기 시작했다. 70년대 동안 아주 많은 회원들이 프로보나 하와이의 라이에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 입학하여 교회가 워드 및 스테이크 수준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경험을 통해 배웠다. 예를 들면, 호 부장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80년대에 와서는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들이 아주 많이 있게 되었다. 또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싱가포르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1987년에 교회는 건축 부지를 더 매입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현재 세 개의 예배당에서 모임을 갖는 다섯 개의 지부에는 1,142명의 회원들이 있다.

싱가포르의 크림색 교회 건물들은 특히 매력적이다. 마치 방금 씻어내기라도 한 것처럼 태양에 반사되어 반짝거린다. (싱가포르에는 매월 150내지 250밀리미터의 비가 내리며 그 도시는 언제나 방금 닦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 아주 거대하게 우뚝 솟은 마천루들과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들이 즐비한 시에서조차도 예배당들은 회원들의 사랑거리이다.

싱가포르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강조되는 두 가지는 회원 재활동 촉진 및 선교 사업이다. 이 사업에 기울인 인내와 사랑으로 인해 회원들은 그렇게 훌륭한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을 것이다. 때때로 회원들의 노력으로 침례가 베풀어지는 경우도 있다. 싱가포르 지부의 루비 자매와 빈센트 고 형제가 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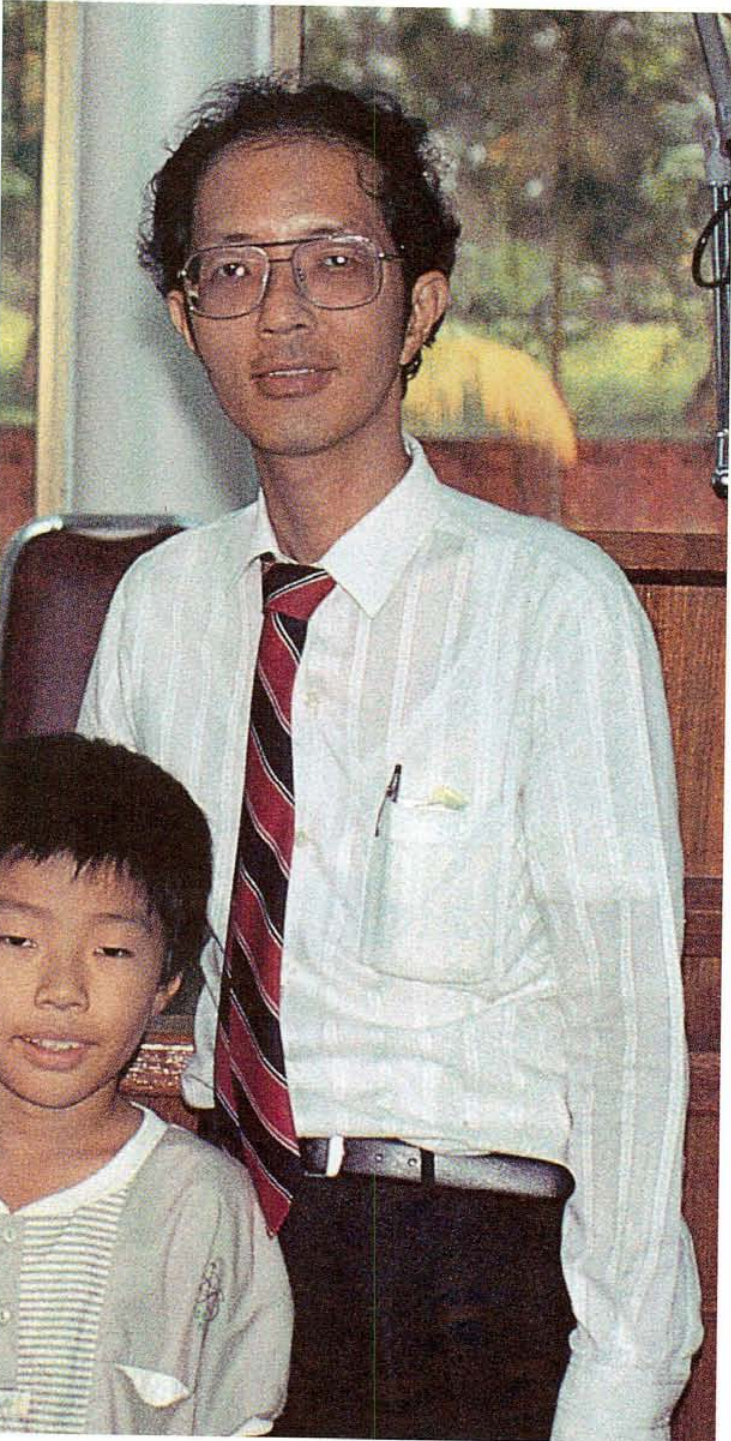
루비 자매는 가족 중 다른 아홉 명과 함께 1969년에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루비 자매는 곧 비활동 회원이 되었다. 루비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1973년에 저는 사회 생활을 활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비회원과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차를 몰고 집으로 오던 중에 차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우리 차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절하고 말았지요. 남편은 곧 숨졌습니다. 그 충격에서 헤어지기까지는 거의 일년여가 걸렸어요. 저는 교회에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에 루비 자매는 함께 일하던 은행에서 빈센트 고 형제를 만나 1982년에 재혼했다. 한편 1980년에는 루비의 자매들 중 한 명이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 교사가 방문하도록 주선했다. 루비 자매는 가끔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빈센트 형제도 아내와 함께 몇 차례 참석했다. 결혼 후, 비회원인 남편과 교회 친구들의 도움으로 루비 자매는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다.

그러나 1985년에 빈센트 형제는 직장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저는 교회 회원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자신의 지도자에게 도움을 구하려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비록 회원은 아니었지만 지부장님을 뵈고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부장님은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누가 보아도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가족관계만 교사 교재에서 성신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관하여 읽었습니다. 저는 어떤 변화를 가져 올 필요가 있다고



맨 왼쪽 : 성찬식에서의 배독 지부 회원들.
 왼쪽 : 싱가포르 성도들은 부킷 티마
 예배당과 같은 교회 집회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아래 : 조셉 고 형제와 가족은
 암과의 투병에서 많은 교훈을 배웠다.



결심하고 그 해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루비 자매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빈센트 형제님의 침례식에서 저는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성신을 느꼈습니다. 이미 우리는 결혼했는데도
 제가 마치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신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큰 행복을 감당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회원들의 강한 신앙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도 나타난다. 싱가포르에서는 가가호호
 방문, 소책자 배부, 가두 집회 등 공공연한 전도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복음 선교사들과 그곳에서
 교회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는 부부들이
 서로 도와 가며 봉사하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을
 강화시키고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과 접촉을 하며 교회
 지도자들이 요청하는 것을 도와 준다. 회원들이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올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세미나리와 신학 연구원 대학부 과정은 회원들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교회 교육 기구 지역 책임자 보조인
 리차드 양 형제는 학생들이 세미나리를 매일 갖기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1986년 7월, 30명의 학생들이
 오전 5시 45분에 모임을 시작했으며, 대학부 새벽반은
 1988년 1월에 시작했다. 대중 교통이 오전 6시까지
 운영되지 않는 관계로 신권 정원에서 돌아가며 교통
 및 아침 식사를 지원해 주었다.

1987년에 첫 세미나리 반원들이 졸업했다. 최근 몇 해
 동안 이 지역에서 배출된 선교사들은 모두 세미나리와
 신학 연구원 대학부 과정을 이수하였다. 현재 11명의
 싱가포르 출신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다.

최초의 세미나리 새벽 반원이었던 바바라 홍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다른 분들처럼 비회원인 저의
 부모님은 그 반에 대해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새벽에 갖는 종교 수업 때문에 학교 공부를
 등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수업이 우리의 배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내 저의 부모님들도 제가 참석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사업에 장애가 된다고 여겨졌던 것이 실제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 자명해졌다. 싱가포르에서는 19세가 된 모든 남자는 군에서 적어도 2년간을 복무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학교 공부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 따라서 선교사로 봉사하게 되는 젊은이들은 23살이 되어서야 대학에 입학하거나 복학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 사업을 가로막지는 못한다. 또한 선교사로 2년간 봉사함으로써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군복무를 2년간 연기하면서까지 더욱 성숙하고 헌신적인 선교 사업을 해 왔다. 많은 싱가포르 회원들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교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을 볼 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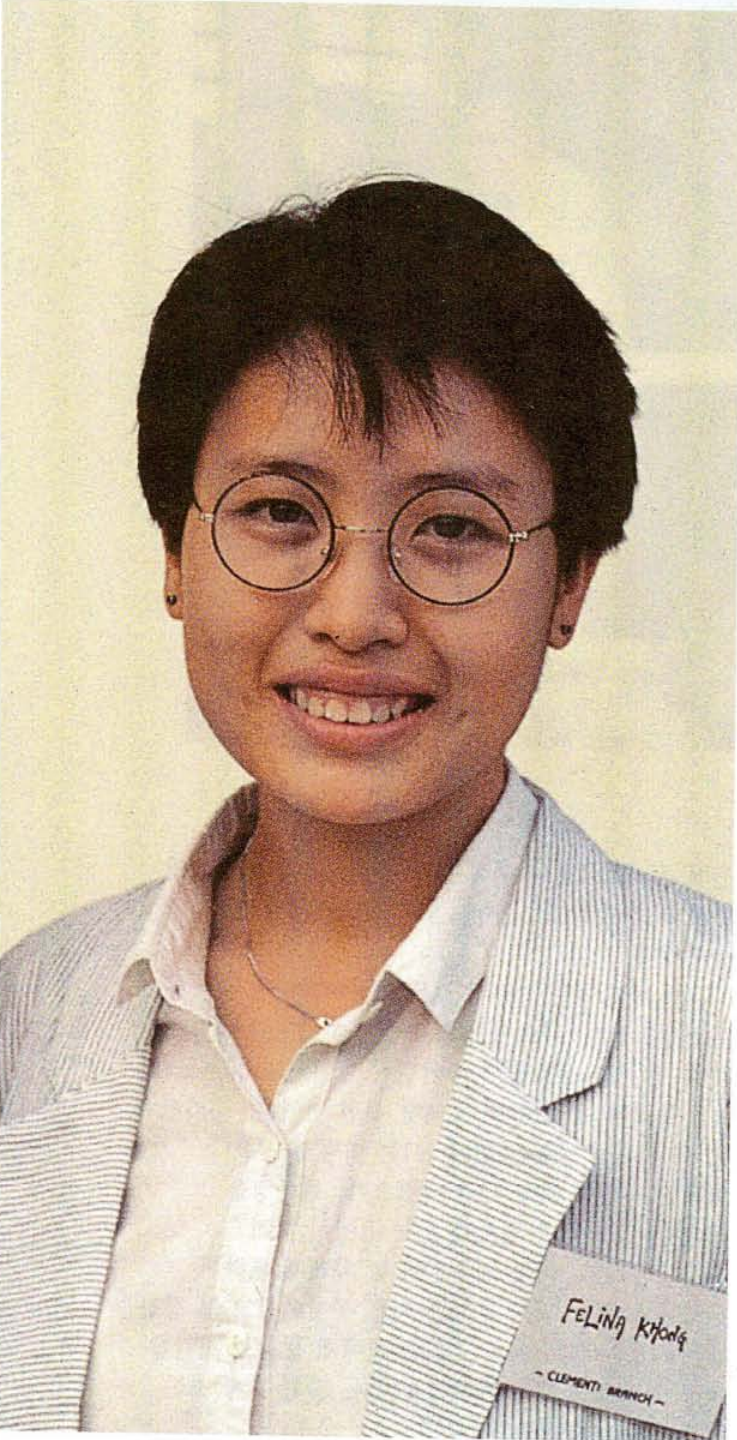
1984년 필리핀의 마닐라 성전이 헌납됨으로써 싱가포르 성도들의 신앙 역시 강화되었다. 싱가포르 제2지부 가족 역사 고문이었던 에드워드 형제와 로이스 베이컨 형제의 보고에 따르면 그 지역은 매년 성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성전 및 그 목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자 참석 수도 늘어났다. 첫 해에는 한 번만 방문했는데 이때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제 회원들은 1년에 두 번씩 성전을 방문하며 이때마다 어느 한 지부에서 후원을 하며, 20명 이상의 회원들이 참석한다.

싱가포르의 생활 수준은 아시아에서 최상급이다. 이 섬나라는 상업과 제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이곳 싱가포르 항구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크며, 선박 총 톤수에서는 첫번째인 비관세 항구인 것이 특징이다. 뿐만아니라 국제 공항도 수준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닐라까지의 왕복 여행비가 비싸기는 하지만 아주 많은 회원들은 성전 여행을 할 만한 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미 수십 명의 부부들이 인봉받았으며 또한 성도들은 조상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비록 한때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일반의 시각이 부정적인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시각이 변하고



맨 왼쪽 : 부킷 티마 예배당과 공개일에
 참석한 방문자들 왼쪽 : 싱가포르
 지방부는 선교 사업과 재활동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아래 : 바바라 흥
 자매(왼쪽)와 펠리나 콩 자매 같은
 세미나리반 학생들은 세미나리가 학교
 공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신했다.



있다. 회원들은 대중을 위한 봉사와 직장에서 그들의
 가치관을 조용히 실천함으로써 회복된 복음에 대한
 존경심을 얻고 있다.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헬렌 호
 자매는 유후아 선거구(50,000명 이상의 지역구)의 여성
 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각 선거구 위원회는
 여성을 위한 문화 교육 활동을 계획하는데, 그 행사들은
 언제나 일요일에 개최되지만 헬렌 자매는 안식일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설명한 후 활동의 대부분을
 토요일로 옮겼다. 아직도 일요일에 열어야 하는 모임에
 한해서는 헬렌 자매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 개종자인 특별 경찰 프랑키 퐁 형제는 교회에 속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
 저의 친구들은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애썼지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인내하면서 그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격려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제 회교도
 친구들에게는 더 온전하게 종교 안에서 살아가도록
 격려해 줍니다. 대부분이 이제는 저의 신념을 존중해
 줍니다.” 그의 훌륭한 모범으로 인해 어머니와 동생이
 최근 침례받았다.

싱가포르 성도들은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공통적으로
 또는 환경에 따라 독특한 시련을 받아 왔다. 배독 지부
 집행 서기인 조셉 고 형제는 아내 제미와 두 자녀의
 도움으로 두 차례나 암과 투병을 해서 승리하였다.
 1987년에 조셉 형제는 왼쪽 다리의 종양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축구를 하던 중에
 약간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통증이 지속되자 아내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라고 강요했습니다. X-레이
 촬영을 하자 종양이 보였습니다. 후에 의사는 만일
 종양이 뼈에까지 연결되면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전날 밤에 제가 받았던 신권
 축복을 기억했습니다. 축복의 말씀 중에는 제가 다시
 걷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수술로 종양은 성공적으로 제거되었고, 조셉 형제는
 3개월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저는 균형을 잡고
 걷는 것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 일곱 살짜리
 아들 켈빈은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종종 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제 손을 잡아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애를 침례줄 때쯤에는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한 쪽 다리에 힘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침례식 동안에 넘어지거나 앓을까 걱정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1월에 X-레이를 찍었을 때 그의 왼쪽 폐에 하얀 반점이 나타났다. 6개월 동안 화학 요법을 받는 동안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다. 그밖에도 자연 면역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통받았는데 그 중에는 수두창까지 있었다. 마침내 모든 반점이 하나만 남겨 두고 다 사라졌다. 지금은 그 남아 있는 반점도 거의 완치되고 있다. 조셉 형제는 12월까지의 가족과 함께 마닐라의 필리핀 성전으로 인봉받기 위해 여행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를 봉사하고 있는 재미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사실 슬픔이 어떤 것인지 혹은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신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암과의 두번째 투병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알고 있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셉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닥쳐 왔습니다. 시련을 통해 아내와 자녀들이 저에 대해 품고 있는 사랑을 알게 되면서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욱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알아서 더욱 애정과 이해심을 갖고 이웃을 대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클레멘티 지부 선교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는 수키만 아브라함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싱가포르의 독특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수키만 형제는 기독교가 아닌 종교를 갖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그의 부모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위 : 교회 활동에 참석중인 회원 알빈 라이와 말린 라우. 아래 : 헬렌 호(가운데) 자매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지역 여성 위원회 회원들과 만나고 있다.



전에 싱가포르에 이주해 왔다. 어렸을 때, 수키만은 부모와 함께 종교 사업에 참여했으며 자신의 종교를 공부했다.

그의 부모들은 신앙이 깊은 분들이었지만 수키만이 말일성도들이 가르치는 학교에 참석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어느 토요일에 수키만이 말일성도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중 그들이 초대를 했던 것이다. 수키만은 그 다음 주에 참석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회복된 복음에 대해 약간 배웠으며, 물문경을 받았습니 다. 저는 집으로 오는 길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몇 차례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부친은 저를 꾸짖으시고 그 경전을 내버리셨습니다. 저의 모친은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조금 가져 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한달 후에 저는 침례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키만의 부모님은 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다. 군에 입대하기까지 두달 동안 그는 집을 나가 있었다. 얼마 후 그의 부모님은 생각을 바꿔서 아들에게 다시 집에 돌아오라고 권유하셨다. 군 복무를 마친 다음 그는 해운업에 종사했다. 1982년에는 부친이 돌아가셨다. 수키만 형제는 이렇게 회상한다. “임종하시는 자리에서는 아버지는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나머지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했지만 제 부모의 신앙으로 보면 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은 불효였습니다. 1985년 어느 날 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습니다. ‘지금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친을 돌보리라.’ 그래서 저는 선교 사업을 행하기 위해 선교 임지로 출발했습니다. 주님은 제가 귀환할 때까지 저의 가족들을 부양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사이가 좋으며 어머니께서는 종종 저를 방문하십니다. 어머니는 복음이 저를 더 훌륭한 남자로 또한 더 효성깊은 아들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확실히 싱가포르의 민족 집단, 문화, 언어, 그리고 종교 면에서 동남 아시아의 축소판이다. 무엇보다도 이 작은 나라에 살고 있는 회원들이 간증하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있다는 사실이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 더 잘 이해하도록 해줍니다.”라고 프란시스 탄 형제는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고 서로 돕고 강화시켜 주도록 돕습니다. 교회에 속할 때 우리는 어떤 관습들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럼으로써 완전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더 이상 외인도 아니며 동일한 시민’(에베소서 2:19 참조)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단결의 표본입니다. 형제와 자매됨은 모두를 한 권속으로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선교부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지만 동남 아시아에서 미치는 그 영향력은 광범위하다.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조건, 다양한 인구, 경제 및 상업상의 부강함으로 이 나라는 많은 주변 국가들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동남 아시아의 여러 곳에 복음의 성장을 위한 자연적인 중심부를 이루고 있다. 싱가포르 선교부에는 세계 인구 중 20퍼센트가 포함되어 있다. 싱가포르 외에도 이 선교부에는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어 있다. 싱가포르 선교부 소속 부부 선교사들은 교회 지부 및 지방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나라들을 여행한다. 특히 로버트 더블류 호튼 부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대회를 집행하고 회원들을 인도하는 데 보내고 있다. 그는 일년에 네 다섯 차례 인도로 여행하고 일년에 네 차례는 스리랑카로, 두 달마다 말레이시아로, 일년에 두 차례 이상 인도네시아로 여행한다. 다음은 선교부 소속 교회 단위의 간략한 통계 분석이다.

인도: 지방부 3, 지부 9, 회원 729, 지도자는 대부분 인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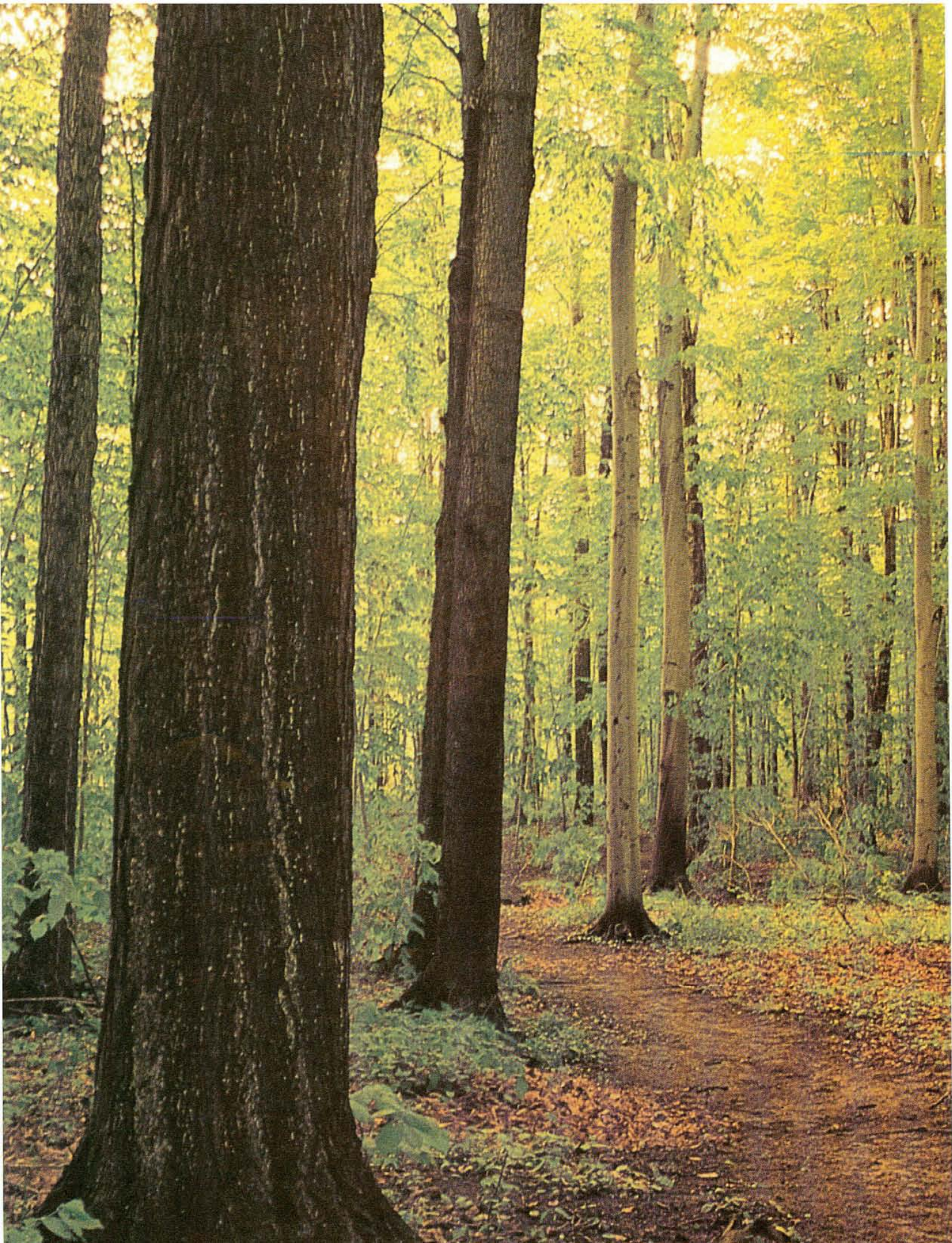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지방부 3, 지부 17, 회원 4,248명, 지도자는 인도네시아인.

말레이시아: 지방부 1, 지부 3, 회원 277명, 지도자는 말레이시아인.

싱가포르: 지방부 1, 지부 5, 회원 1,142명, 지도자는 대부분 싱가포르인.

스리랑카: 지부 1, 회원 135명, 지도자는 스리랑카인.

이 기사를 쓰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리차드 타이슨 형제는 유타주 컨츠 서 스테이크 컨츠 윌렛 힐스 와드 회원이다.



요셉 스미스 가족의 농장 근처에 있는 숲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 뿐만 아니라 가족의 영적인 생활도 강화시켜 주었다. 스미스 농장 숲의 어딘가에는 가족들이 자주 은밀한 기도를 드리던 조용한 장소가 있었다.

성스러운 숲

도널드 엘 앤더스

요셉 스미스가 소년이었을 당시 선구적인 역할을 하던 개신교 목사들은 주님이 더 이상 인간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사도들의 사망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단절되었으며 성경이 인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더 이상 계시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을 잊지 않으셨다. 1820년 어느 화창한 봄날, 뉴욕 서부의 시골에 위치한 요셉의 가족 농장 근처 숲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요셉 스미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 이 사건으로 수세기 동안 지상에서 잃어버렸던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요셉 스미스 일세와 가족들은 1816년에 버몬트주 동부의 커네티컷 리버 밸리에서 뉴욕 서부로 이주해 왔다. 그들은 팔마이이라에 정착했는데 그곳은 밀이 풍성하게 자라는 게네시 지방에 위치한 부유한 마을이었다.

스미스 가족은 팔마이이라로 이주해 온 지 2년후, 당시



그들이 사려고 교섭중이던 40헥타르 정도의 삼림 지역 근처로 가기 위해 스탠포드 로드에서 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3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통나무집을 지었다. 1820년 중반쯤에 그 토지 구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들은 소유주에게서 땅을 개간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 1819년에서 1825년 사이에 그들은 24헥타르의 목재를 베는 작업을 계속했다.

그들은 이 개간한 땅을 밭과 목초지와 정원과 과수원과 영구 주택지와 건물 부지로 개발했다.

농장을 개간하면서 스미스 가족은 19세기 초엽 대부분의 다른 농가들의 방식대로 숲이 있는 땅의 약 3분의 1을 남겨 두었다. 남겨 둔 약 10헥타르의 삼림지는 소유지 동편에 있는 두 개의 언덕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떡갈나무 목재는 통을 만드는데 쓰였으며, 다른 나무들은 요리와 난방 연료로 그리고 수액을 단풍 당밀과 단풍 당으로 끓여 만드는 연료로도 사용했으며 지역 사람들에게 땀감으로 팔기도 했다.

농장 서편에 있는 숲은 그대로 남겨두었는데 이곳에는 당액을 채취하는 단풍 거목들이 아주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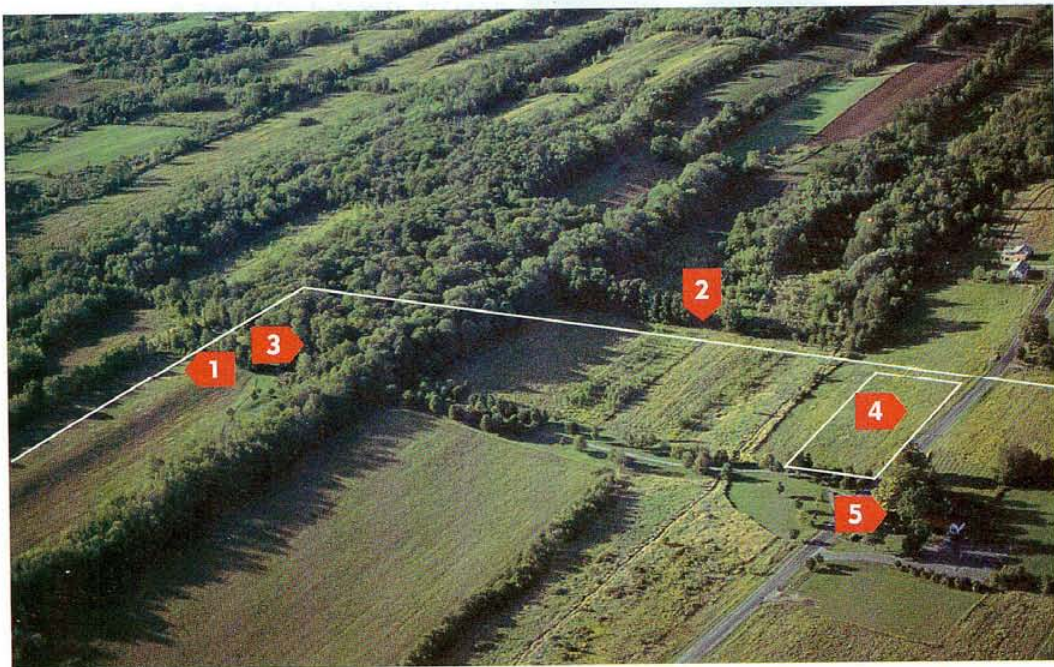
자라고 있었다. 스미스 가족이 매 절기마다 채취하는 약 1500그루의 단풍나무에서 매년 약 450킬로그램 정도의 수액이 생산되었다. 만아들인 알빈은 아마도 이 숲에서 목조 가옥을 축조하는 데 사용되는 너도밤나무 재목을 베었을 것이다. 집과 농장 도구들을 만들 목재를 구하고 가족과 가족이 먹을 과일과 밤같은 나무 열매를 딴 곳도 바로 이 숲이다.

스미스 농장의 숲지는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용품을 구하는 창고 이상의 역할을 했다. 그 숲은 또한 그들의 영적인 생활을 강화시켜 주었다. 스미스 농장 숲의 어딘 가에는 가족들이 은밀한 기도를 드리하고자 할 때 즐겨 가는 조용한 장소가 있었다.

스미스 가족이 이 농장에서 이사가고 난 후 다음 소유주는 농장 동편 끝의 나무를 모두 베어버리고 서편 숲지도 현재의 4헥타르 정도의 규모로 좁혀서 경작지를 넓혔다. 1820년 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 곳이 바로 농장 서편 끝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장소이다.

1805년 12월 23일생인 요셉이 그 숲에서 시현을 본 것은 아직 소년이었을 때이다.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자료를 보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것에 관하여 깊이 생각했었다고 나와 있다. 그는 신앙심 깊은 사람이었고 또한 경전을 연구하고 종교 집회에

명상을 위한 조용한 장소로 보존되고 있는 성스러운 숲에는 현재 요셉 스미스 당시 자라고 있던 나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 중 많은 나무가 25~30미터 정도나 된다. 이 사전에는 서편(1)과 동편(2)의 경계를 긋는 외곽선과 함께 스미스 농장이 보인다. 성스러운 숲은 북서쪽 구석(3)에 있다. 다른 땅에는 사과 과수원(4) — 1823년 모로나이가 요셉에게 나타난 곳으로 추정 — 과 스미스의 집(5)이 포함되어 있다.





참석하면서 영적인 지식을 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도 그가 주님께 용납될 수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지 알고자 하는 열망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마침내 요셉은 그가 충심으로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그의 물음에 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야고보의 서한에서 요셉은 기도를 통해 성신의 이해를 구하라는 영감을 받았다. 이 특별한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소리내어 기도한 것이 바로 그가 처음 행한 노력이었다.

요셉의 말에 따르면 그가 기도한 때는 “1820년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개인 날 아침”이었다. 농장 소년이 봄철의 과중한 일손을 놓을 수 있는 날은 주중에서 일요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기도하기 위해 조용하고 은밀한 장소를 찾는 것을 안식일로 택했던 것 같다. 후에 요셉은 전날 자신과 아버지와 형들이 함께 나무를 베었던 숲 지역으로 기도하러 갔다고 말했다. 농장 일은 계절적인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땅을 개간하기 위해 나무를 베는 일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려는 때가 끝난 늦가을에서부터 이른 봄까지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요셉이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였던 때가 아마도 1820년 3월 하순에서 4월 사이의 주중이었던 것 같다.

요셉이 기도하고 놀라운 시현을 경험했던 정확한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다. 요셉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 장소를 밝히지 않은 것 같다. 커틀랜드 성전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에 관한 특별한 언급 외에는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예언자는 일반적인 방법 말고는 성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에 관한 언급을 회피하였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성스러운 경험을 존중했기 때문일 것이다.

스미스 농장 서편 끝에 있는 숲은 스미스 가족이 팔마이러 지역에서 이시간 후에도 오랫동안 인접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첫번째 시현을 연상시키는 곳이 되었다. 1860년, 요셉 스미스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주장하는 세스 더 체프만이 스미스 농장이라고 하는 곳을 샀다. 후에 그는 그의 아들 윌리엄에게 자신은 농장의 서편 끝의 숲지에서는

나무에 도끼 하나도 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요셉이 이곳에서 시현을 보았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성스러운 숲은 뉴욕주 서부의 윈시립 중에서 마지막으로 잔존하는 곳 중의 하나이다. 요셉 스미스 일세와 알빈이 구입했을 때만 해도 스미스 농장은 그 지역의 많은 땅들처럼 울창한 경목림으로 덮여 있었다. 나무들 중에는 350년 내지 400년 생이 많이 있었다. 이 윈시립의 수목들은 대체로 무척 크게 자랐다.

이 거대한 숲지의 바닥에는 수많은 세월동안 떨어져 쌓인 낙엽들이 깔려 있었으며, 비옥한 토양에서는 양치류, 목초, 야생화, 산벚나무, 말채나무 같은 것들이 무성하게 자랐다. 1800년대초 미국 동부에는 들레, 키, 나이, 아름다움 등에 있어서 뉴욕 서부 삼림의 나무에 비견될 만한 나무들이 거의 없었다. 자연의 오묘한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나타나실 만한 성소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첫번째 시현이 있는 지 150년후에도 그 4헥타르의 숲에는 여전히 예전의 아름다움이 많이 남아 있다. 요셉의 시대에 이미 성목이 되었던 나무들은 이 연륜 깊은 숲에 아직도 서 있다. 이 숲속에 있는 많은 나무들은 200년 이상 된 것들이다. 아직도 해마다 낙엽이 쌓이고 있는 바닥 아래에는 항상 새로운 덩굴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

지금 그 성스러운 숲은 수년 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잘 보호되며 더 아름답다. 몇 해 동안 우리 교회는 말일성도들에게 성스럽고 아름다운 이 숲의 생명을 보존하고 연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나무들을 계속 심어서 옛날과 같은 크기로 숲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숲을 울창하게 가꾸고 있다. 이 성스러운 숲은 최근까지 그 생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해 왔던 병과 공해로부터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을 세워서 이 성스러운 숲을 개인과 부부와 작은 단체들의 조용한 명상의 장소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지시에 힘입어 미래의 세대는 이 신성한 땅의 평온함과 성스러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도널드 엘 앤더스는 교회 역사과에 속한 사적지 선임 관장이다. 그는 유타주 케이스빌리의 제11와드에 거주하고 있다.

새해의 결심을 실천함

여러분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몇 주일이 지나면 그 열정이 식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새해의 결심을 가장 잘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결심을 하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현재 경전을 전혀 읽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매일 30분씩 경전을 읽겠다고 결심한다면 실현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 몇 구절이라도 경전을 읽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더 실현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목표를 늘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큰 목표를 작은 목표로 나누십시오. 예를 들어, 돈을 저축하고자 한다면, 목표를 너무 막연하게 두지 말고 첫째 달에 저축할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을 세웁니다. 그리고 1/4분기 말까지 저축할 더 큰 액수를 정합니다. 이러한 작은 목표들이 여러분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목표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십시오. 일단 실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결정했으면 그 목표를 계속해서 상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거울이나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표어를 붙여 놓는 구식 방법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표어를 눈여겨 보는 습관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때로는 간단한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경전을 읽겠다고 결심을 한 경우,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경전을 베개 위에 두십시오. 그러면 잠자리에 들기 전 그 경전을 치워야만 하기 때문에 깜빡 잊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만일 세워 놓은 목표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 목표를 기꺼이 변경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세운 결심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달성하기에 정말로 너무 과중한 것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여 포기하는 대신에 그 목표가 진정으로 도움이 되며 향상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



예기치 않은 별

마카레타 스펜서

북 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나는 두 명의 소녀와 함께 방을 쓰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친구를 통해 만났는데 나와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돈을 여유있게 갖고 있지 못했다. 캐롤과 앤은 둘 다 조산 학과 학생들이었으며 나는 졸업 후 간호 과정을 위해 저축하고 있었다.

우리 아파트는 그다지 쾌적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의 집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도 캐롤과 앤은 어린이 학대 예방 협회에 전화를 걸어 12명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 주겠다고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나도 캐롤의 언니 마리안처럼 그 일과 재정을 돕는 데 동의했다.

나는 빈민가의 참혹성을 본 적이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찢어진 여름 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춥고 바람부는 길가에 앉아서 장난감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진흙 한 덩이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제는 그 아이를 찾아 도와 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다.

우리는 70센티미터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꼬마 유리공 아홉 개와 은박지 조각과 곡물 상자 안쪽에 있는 포장 박지로 만든 별 한 개로 장식했다. 장식용으로 우리는 색종이 조각들과 풍선 몇 개를 천정에다 매달았다. 음식은 튀김 감자와 소세지, 구운 토마토와 과자, 그리고 오렌지 음료 등이었다. 선물은 작고 값싼 것으로 플라스틱 구슬로 만든 목걸이, 인형 식사 세트, 어린이 그림책, 조그만 장난감과 게임판이 전부였다. 또한 나는 길가의 소녀를 생각하며 나는 모형 제작용 점토 한 상자를 샀다.

아이들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자신들이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입은 옷은 대개가 아주 낡고 초라한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세어 보았다. 열 하나, 열 둘, 열 셋! 소녀들 중에서 한 명이 집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는 꼬마 여동생을 데려왔던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겐 문제가 되었다.

그 당시 나는 상호 부조회 바자회를 위해 소녀들이 가지고 놀 작은 플라스틱 인형의 옷을 만드는 것이 내 연례 계획이었다. 인형 몇 개가 내 방에 있었다. 나는 의외의 손님을 위하여 재빨리 그것들 중에서 한 개를 꺼내 마지막 남은 포장지 조각으로 싸서 서둘러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놓았다.

어린이들 대부분이 문앞에 모여 서 있었는데 여덟 살쯤으로 보이는 남자 아이가 얇은 포장지에 싸인 선물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꼬마 소년은 “누나, 괜찮다면, 저하고 제 친구들을 위해 이 테이블 축구 게임판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캐롤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선물들은 파티가 끝나고 나서 줄거란다. 지금은 몇 가지 놀이를 하자꾸나.”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놀이를 했고 아이들은 우리를 위해 놀이를 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지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우리는 애들 노래를 부르기에 실증이 날 만큼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다. “작년에요, 저는 큰 홀에서 열린 파티에 갔었어요. 거기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천정에까지 닿았어요.” 12살짜리 체격에는 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너무 큰 굽 높은 신발을 신은 가장 나이 많은 소녀가 세련되게 보일려고 애쓰면서 이야기했다.

“좋았니?” 약간 부러워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이렇게 좋은 언니들이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간단한 음식을 내놓았는데, 처음에는 기쁨의 탄성이 나오더니 다음에는 열심히 먹느라고 모두 조용해졌다.

“너, 음식을 남겼구나.” 한 남자 아이가 옆에 앉은 아이에게 말했다.

“난 그걸 먹을 수가 없어. 난 지금까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음식을 받아 본 적이 없어.”

“그럼 이리 줘. 좋은 음식을 낭비한다는 건 창피한 일이잖아.”

그 아이는 또 다른 아이들의 접시에 남은 음식들을

먹어 치웠지만 결국은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테이블 축구 게임판을 주었다. 열 두 살 짜리 소녀에게는 플라스틱 구슬 목걸이를 주고 일곱 살 짜리 소녀에게는 인형 식사 도구 세트를 주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저한테는 이게 소용없어요. 저한테는 인형이 없는데요.”

그래서 나는 상호부조회 바자회때 쓸 플라스틱 인형을 한 개 더 꺼냈다. 이번에는 필기 용지로 포장해서 나무 뒤에 놓아 두었던 것처럼 했다.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좋은 파티였어요. 정말 편안했어요.” 어떤 아이가 만족스럽다는 듯 이야기했다.

또 다른 아이가 맞장구쳤다. “정말 굉장했어요, 언니. 우리 누구나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언니 중 한 사람이 꼭 도와 주었어요.”

그때 나는 이제까지 주는 것에 대해 배워 왔지만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다.

앞에서 이야기한 열 두 살짜리 소녀는 자기의 찰흙으로 만든 구슬 목걸이를 아기 그림책에 나오는 찰흙 장난감 자동차 하고 바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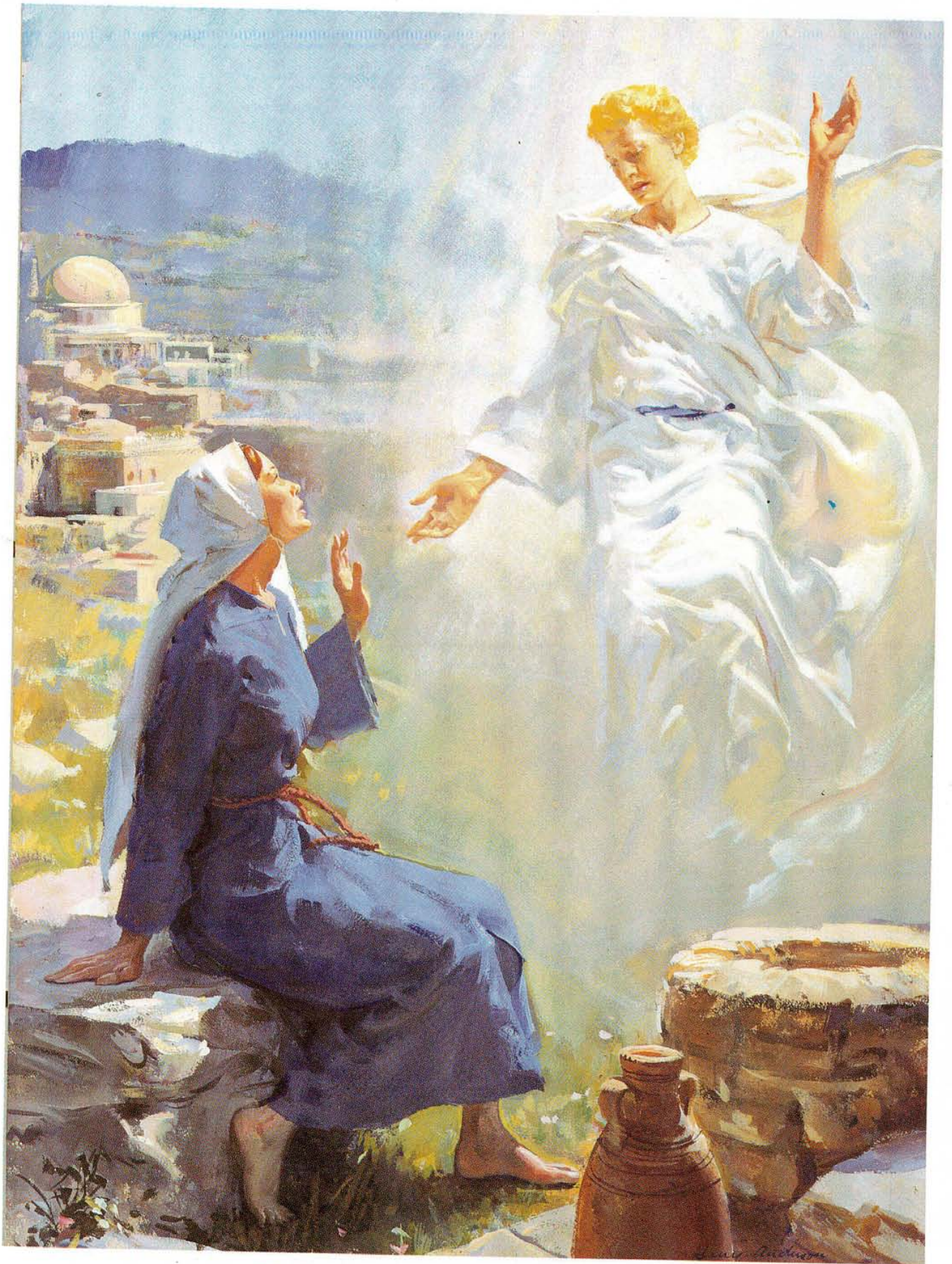
“괜찮을거야.” 그 소녀는 한 번 사용한 포장지 테이프가 더 이상 잘 붙지 않는데도 다시 포장하려고 애쓰면서 이야기했다.

“끈 좀 있어요. 언니? 연필두요.”

나는 그 소녀가 무얼 하려는 걸까 의아해 하면서 끈과 연필을 주었다. 소녀는 그 꾸러미를 서툴게 묶고는 크고 뻘뻘한 글씨로 그 위에 “토미”라고 썼다.

소녀는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설명했다. “제 남동생 거예요. 언니. 아무도 그 앨 파티에 초대해 주지 않았어요. 우린 동생한테 선물을 사줄 형편이 못되거든요.”

그 어린 소녀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과 사랑이 그녀의 험렁한 옷을 통해 비치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에게서는 몇 해 동안이나 빛을 발하고 있는 모범이 되고 있다. *



“네가…아들을 낳으리니” 해리 앤더슨 그림

“천사가 일어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차니 너께 은혜를 얻었나니 네가 자기 손에 잉태한 자를 낳으리니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었느니라. 내가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며 나로 인하여 아버지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니파이 삼서 9장 15절)